

I. 서 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근대화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경험하였다. 산업 기술의 발달과 경제 규모의 확대는 소득 수준의 증가, 물질적 풍요, 교육 기회 및 여가의 증대를 유도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 및 기회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향락주의와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및 가치를 형성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이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청소년기는 연령적으로 사춘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청소년들은 발달과정중에 야기되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하여 불안, 초조, 혼돈, 긴장, 갈등, 정체감의 혼미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향 및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의 정의적, 복지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약화되어 가는 가족 관계내에서 과거와 같은 명확한 가치규범이나 역할 모형을 제시받지 못하고¹⁾ 사회 구조적인 역할 기능면에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이 제한된 채 주변인적인 위치에 오래 정체하면서 까다로운 사회화의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개인의 능력, 적성, 희망 등에 관계없이 대학입시를 향한 중압감과 기대속에서 왜곡된 비정상적 교육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시달리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기성세대와의 사이에 커다란

가치관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부모, 교사, 사회 등의 기성세대의 가치가 거의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지는 상황속에서 청소년 세대는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된다²⁾.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며 아직까지 이상적이고 현실감이 부족한 이들은 자신의 사고와 상이한 기존 사회체계에 대해 실망과 좌절을 갖게 되며 사회인 또는 사회규범에 반발하게 된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의 사회적 상황과 인간관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의식의 혼란과 정체감에 빠지게 하며 이러한 청소년의 자아확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화는 비행 및 문제행동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겪게되는 행동상의 부조화로 주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때로는 충동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쉽게 저지르게 된다. 이와같이 현대사회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현실과 상이한 욕구수준을 갖게 하고, 이러한 비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청소년들의 행동은 문제행동이나 비행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³⁾.

따라서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한 지위적 욕구불만과 자아존중의 상실이라는 적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지위와 사회적 인정, 자아존중의 새로운 기준에 바탕을 둔 비행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현대사회의 사회적·심리적 아노미와 문화 지체로 인해 청소년의 이탈과 비행 그리고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그 양상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과 학교가 제 기능 및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즉, 오늘날의 가정은 청소년의 사회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여건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룬 반면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비행 및 소외현상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과거보다 훨씬 많이 내포하게 되었

다. 특히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정의 핵가족화와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에 따른 가정에서의 갈등 현상은 청소년의 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의 도구적, 표현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학교교육 역시 주입식 및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전인교육의 부족, 교육환경의 불건전한 풍토로 인한 교사의 학생 지도력 약화, 불량 씨클로 인한 불건전한 교우관계 등 제반 요인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기의 독특한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인 규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예방대책의 제시가 가능하다면 청소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 중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한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각 행동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 유형 중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할 문제행동 9개를 선정하였다. (흡연, 음주, 약물남용, 가출, 폭력, 성폭행, 자살, 음란물 구독 및 시청, 유해업소 출입) 문제행동 유형 중 성폭행과 같은 범죄행위나 청소년의 자살도 포함시켜 문제행동의 범위를 폭넓게 다루었다.

둘째, 선정된 각 문제행동에 대해 서울시내 남녀 고등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수집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셋째, 선정된 각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 동기 등의 실태를 조사한 문헌 연구를 종합 고찰하였다.

넷째, 선정된 각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선정된 각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언급된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중 본 연구에서 다룰 문제행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자문회의(청소년 전문가를 중심으로 3회 실시), 청소년 관련기관(청소년 상담소, 소년원, 청소년 감별소, 청소년 보호관찰소)과의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사례 수집을 위해 서울시내 20개 고등학교(남녀 각각 10개교씩)를 방문 조사 하였으며, 각 학교의 학생 주임 교사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한편, 문제행동 유형의 특성상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행동의 사례는 신문기사 내용을 참조하였다.

셋째, 선정된 각 문제 행동에 대한 실태 및 원인 분석, 그리고 대책 수립을 위해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 (1)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은 학자의 주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9개의 행동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 (2)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행동 사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 (3)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실태 및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한 내용을 문헌 연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취약점을 지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내용에 대한 각종 통계 자료 및 기존 연구결과를 비교·제시함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특성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1) 이상주(1983), 기성세대와 청소년, 현대사회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2) 임희섭(1986),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 청소년 문제 논설집, 제16집, 서울청소년 지도육성회.
- 3) 강복현(1985), 청소년 비행의 요인과 대책, 사회과학연구, 제1집, 성심여자사범대학교, 인간 및 사회복지 연구소.

II. 청소년과 문제행동

II. 청소년과 문제행동

1. 흡 연

흡연이 청소년층에서도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측에서 장소를 막론하고 학생들의 흡연을 엄격히 금지해왔으나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의 금연 구역이 학교안으로 제한되었고, 최근에는 일부 남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흡연실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1) 청소년의 흡연 사례

다음의 사례들은 일부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한 두번 흡연해보는 정도를 넘어서 습관적으로 흡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사례 내용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가명임을 밝혀둔다.

흡연 사례 I

“88년 1학년 겨울방학에 학원에 다니면서 친구와 함께 재미삼아 담배를 피우다가 조금씩 늘어서 하루에 10개피씩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초에 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아버지께 들켜서 약 한 달간 피우지 않다가 친구들이 피우는 것을 보고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즈음은 한 갑을 사서 친구들과 나눠 피우고 또 반갑 정도는 꼭 피워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학원에서 피우다가 선생들한테 혼도 나보고 어제와 같은 일도 있고 해서 요 며칠 들어 많이 줄여서 2-3개피 밖에는 피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 몇명이 어제일로 점심시간에 선배들한테 맞고 무척 화가 나서 저희들도 기분이 상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곳에서 전혀 피우지 않았는데 오늘 기분이 너무 나빠서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흡연 사례 II

“저는 9월 22일 금요일 5교시 수업이 끝난 후 화장실에 갔다가 주머니속에 있던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심코 입에 물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도 학교내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3학년에 올라오면서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3학년에 올라와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두번 피웠는데 지금은 담배 피우는 것이 습관화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담배가 있을 때는 별 생각없이 피우게 됩니다. 오늘의 경우는 아침에 집에 있던 담배를 가방에 넣고 학교에 오게 되어 5교시 후 2층 오른쪽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께 적발된 것입니다.”

(2) 청소년의 흡연 실태

청소년 흡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청소년의 흡연 실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그 후 청소년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고, 그 중에는 단순한 실태파악의 차원을 넘어서 흡연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거나, 청소년 비행과 흡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려는 연구도 상당수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흡연의 실태를 소개하려고 한다.

고등학생의 흡연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사실은 학년이 높을수록 흡연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높다는 것이다.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태빈(1976), 송인구(1982), 이승연(1988) 등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 고교생의 흡연경험율이 60-67%에 달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송인구의 연구에서 보고된 남자 고등학생의 계열별, 학년별 흡연 정도 이다¹⁾.

[표 1] 남자 고교생의 계열별, 학년별 흡연정도

(단위 : %)

학년 흡연빈도	1학년 (1,209명)	2학년 (1,193명)	3학년 (1,060명)	실업계 (2,008명)	인문계 (1,464명)
상습적으로 흡연	3.8	11.7	25.6	13.8	12.5
가끔 흡연	15.4	17.4	15.0	16.9	14.4
흡연경험이 있음	30.2	42.2	34.5	38.9	31.4
흡연경험이 없음	50.6	28.7	24.9	30.4	41.7

위의 결과에 의하면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실업계 학생일수록 흡연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학년 학생들은 49.4%가 흡연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3.8%만이 상습흡연자인데 반하여 3학년 학생들은 75.1%가 흡연경험을 가지고 있고 상습흡연자도 25.6%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58.3%가 흡연경험자인데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69.6%가 흡연경험자이다.

최근에 김준호 외가 전국의 남자 고등학교 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58.7%, 재수생의 경우 85.8%가 흡연 경험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²⁾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남자 고등학교학생들의 흡연 동기

인원, 비율 흡연동기	인원 (명)	비율 (%)
호기심	238	52.9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117	26.0
어른이 된 기분	19	4.2
정신적 갈등	70	15.6
체중조절	6	1.3
계	450	100.0

교주변의 구멍가게에서 구입하는 학생이 21.8%로서 흡연학생의 61%가 직접 담배를 구입하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34.7%가 친구에게 얻어서 흡연하고, 4.3%의 학생은 아버지나 형님의 담배를 몰래 훔쳐 흡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⁷⁾.

청소년들은 대부분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인구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86.8%)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다⁹⁾.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해독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4]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가능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¹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질병유형				(명)	(%)
폐			암	210	41.5
간	장	질	환	138	27.3
구	강	질	환	76	16.0
위	장	질	환	20	4.0
심	장		병	62	12.2
계				506	100.0

한편, 일본의 總理府 靑少年 對策本部가 흡연을 하는 남자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후의 느낌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흡연 후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기분전환에 좋다” 56%, “마음이 편안해진다” 50%, “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23%, “생활에 활력을 준다” 10%, “건강의 척도가 된다” 5%,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을 준다” 5%, “기타” 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후의 유해성에 대한 자각증상에 대해서는 “숨이차다” 38%, “입에서 냄새가 난다” 32%, “목이 아프다” 28%, “심장이 뛰다” 12%, “위장에 이상이 생긴다” 8%, “감기들이기 쉽다” 2%, “기타” 13% 등으로 보고되었다.¹¹⁾

(3) 청소년 흡연의 원인

청소년들은 성인으로 대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인다움을 상징하는 행위를 선택적으로 모방하려고 한다. 흡연행위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인다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해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성인들의 흡연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예외적인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로 흡연이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흡연을 성인다움을 상징하는 행위로 여기며, 자신들의 흡연행위를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흡연행위를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으로 여기고 있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흡연을 시작하는데에는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청소년들의 흡연행위를 부추이는 환경적 요인은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압력과 친구집단으로부터의 압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정불화, 부모와의 갈등, 형제들과의 갈등 등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족들간에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들은 그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을 즐기게 된다. 또한 학교성적이나 입시준비로 인한 압박감, 교사나 동료, 선배들과의 갈등도 청소년 흡연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

이 되고 있다.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압력은 흡연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가출, 과음, 약물남용 등의 보다 심각한 일탈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환경적 요인은 친구집단으로부터의 압력이다. 흡연자들로 구성된 또래집단은 구성원들에게 흡연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흡연행위를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김으로써 은연중에 그들로 하여금 흡연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따라서 흡연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청소년들은 흡연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이 실질적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청소년 흡연을 부추이는 하나의 원인이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자들이 미성년자의 담배구입 목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법규정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자동판매기는 청소년들의 담배구입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4) 청소년 흡연에 대한 대책

흡연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담배속에는 방광, 간, 십이지장 등에 손상을 미치는 물질이 들어있으며, 그러한 물질은 폐암,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방광암 등의 원인이 된다¹²⁾. 또한 여성들의 흡연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흡연은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미국의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흡연자들이 결근, 근무 불충실, 좋지 못한 건강 등으로 사업가들에게 연간 4,700달러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¹³⁾.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성인들의 흡연을 당연시하는 사회풍토에서 청소년들

만을 대상으로 흡연을 금지시키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금연운동의 일환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들의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들의 흡연과 그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자신의 흡연을 목적으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흡연을 하더라도 그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흡연이 발견되면 보호자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¹⁴⁾. 부모들 중에는 자녀가 흡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흡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흡연을 할 경우, 부모를 처벌하는 방법은 부모들의 경각심과 보호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을 규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흡연실을 마련해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처벌규정에 해당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 이외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요즘 외국산 담배의 자동판매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족이고 있다.

법적인 대응책 이외에 흡연문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청소년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학고사를 마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해로움에 관한 비디오테이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흡연의 해로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기와 교육내용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흡연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흡연을 시작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엔 국민학교 때 흡연을 시작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대상 연령을 낮춰 국민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한 지도방안

인간의 기억력은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숫자나 이름 등을 기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 또는 맛 등을 기억하는 것이다¹⁵⁾. 그러나 숫자나 이름은 잘 잊어버리지만, 한 번 기억된 맛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담배 맛도 마찬가지여서 일단 담배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에 대한 기억을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흡연문제에 대한 지도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여 흡연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주로 자신의 집이나 친구집에서 흡연을 하고 호주머니나 책상서랍 등에 담배를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면 자녀들이 흡연을 하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흡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격하게 지도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반항심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면서도 훈계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반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녀의 흡연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후, 자녀가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살피도록 한다. 만약 자녀들의 흡연행위를 덜어주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자녀들이 습관적인 흡연자가 되기 쉽다. 그러나 부모의 경우 자식의 흡연행위에 대해 관대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지도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학생들 중에는 습관적인 흡연자이면서도 우연히 했다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학생들의 흡연 지도는 부모들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모들을 통해서 학생의 흡연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흡연행위가 다

른 비행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드 있다. 또한 흡연이 가정 문제에 기인된 경우, 그 학생이 처해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점에서도 부모들과의 공동지도가 요구된다.

끝으로 청소년 흡연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강요나 억압 등 무리한 지시를 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청소년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도한다.

다섯째, 흡연이 왜 나쁜지, 흡연이 갖고 있는 유해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시켜 준다.

여섯째, 가급적 성인들은 청소년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가능한한 금연 운동에 솔선 참여한다.

- 1) 송인구(1982), 고교생의 흡연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전공업 전문대학 논문집, 제 31권, p. 6.
- 2) 김준호외(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3) 이승연(1988), 서울시내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행태 및 지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
- 4) 임태빈(1976),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 조사 및 그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 5) 송인구, 전게서, p. 9.
- 6) 이승연, 전게서, p. 3.
- 7) 임태빈, 전게서, p. 15.
- 8) 이승연, 전게서, p. 5.
- 9) 송인구, 전게서, p. 8.
- 10) 임태빈, 전게서, pp. 20-21.
- 11) 總理府 靑少年 對策本部(1982), 不良行爲少年の 實態と 對策に 關する 調査.
- 12) 차종환(1986),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바울서신사, p. 69.
- 13) 차종환, 상게서, p. 71.
- 14) 檀山四郎(1983), 非行生徒の回復 相談, 新日本法規.
- 15) 차종환, 전게서, p. 70.

2. 음 주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음주에 대한 경험, 동기, 비행과의 관계, 음주로 인한 범죄 및 사고, 음주와 건강, 치료 및 예방 등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 음주는 청소년 성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¹⁾.

(1) 청소년의 음주 사례

다음은 고등학생들의 음주 행위에 대한 사례들이다.

음주 사례 I

“저는 어제 저녁 집에 있는 머루주를 종이컵으로 한 잔 마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음악을 들으며 책을 뒤적이다 2시쯤 잤습니다. 술 먹은 시간은 12시 부터 12시 30분 사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전에 병째 두 모금을 돌리셨습니다. 원래 맥주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이라 조금 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8시쯤에 교문에서 선도부 학생에게 적발되어 학생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이유는 디자인과에 있는 한 여학생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외면하는 그 여자 아이가 미웠습니다. 여자 아이한테 수모를 당한걸 생각하니 속도 상하고 기분도 우울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음주 사례 II

“5월 29일 일요일 밤 도서관에서 나와 친구들과 만나기로한 당구장으로 갔다. 그날은 친구의 생일이라 술을 한잔 산다고 해서 약속장소로 나갔으나 친구들이 술집 장소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그냥 헤어졌다. 화가 난 친구 한명과 나는 소주 2병과 오징어 1마리를 사들고 산에 올라가 술을 마시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어

느닷 새벽 3시가 되어 빨리 집으로 왔지만 너무 늦어 어머니께 혼을
나고 형에게 몇대 맞았다.

다음날 나는 어제일로 기분도 나쁘고 해서 친구들에게 돈 4만원을
빌려 광주 할머니 택 근처에 가서 여관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나는
극장, 다방, 당구장, 오락실, 만화가게 등을 돌아다니다가 할머니택
에서 잠을 자면서 삼촌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집에 전화 연락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2) 청소년의 음주 실태

청소년 음주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음주경험자의 비율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학생청소년, 소년원생, 근로청소년
간에도 차이가 있다. 전국의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병근외의 연
구에 의하면 12~14세 학생의 16.2%가 음주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15~17세 학생중에는 58.2%, 18~21세 학생중에는 88.9%가 음주경험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음주경험의 차이를 살펴
보면 12~21세의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은 71.4%가 음주경험자이고 여
학생은 19.1%가 음주경험자였다²⁾. 다음의 [표 5]는 청소년들의 연령
별, 성별 음주경험자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 5] 청소년의 연령별, 성별 음주경험자 비율

연령별 음주경험자 비율		성별 음주경험자 비율	
12~14세	16.2%	남자	71.4%
15~17세	58.2%	여자	19.1%
18~21세	88.9%		

음주경험자의 비율은 학생집단, 소년원생, 근로청소년 등의 세 집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연령과 성별차이를 고려한 세 집단의 음주경험
자의 비율을 검토하기 위해, 비슷한 연령범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남자청소년을 중심으로 비교해보았다. 먼저 12-21세의
남자 학생청소년의 경우, 38.6%가 음주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

혀진 반면³⁾ 같은 연령범위의 소년원생 중에서 음주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68.0%이며⁴⁾, 14~21세의 남자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57.5%가 음주경험을 가지고 있다⁵⁾.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학생집단보다는 비행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들이 음주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89년 체육부가 조사한 음주 경험율과 비교해 보면 각 집단간의 음주 경험 순위는 동일하지만 음주율은 과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몇년 사이 청소년의 음주 경험은 매우 많아졌음을 시사한다. 다음의 [표 6]은 세 집단의 음주경험자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⁶⁾

[표 6] 집단별 음주경험자 비율

청소년 유형	인원(명)	음주경험자 비율
학생청소년	2,724	48.0%
소년원생	907	93.1%(남자는 68.0%로 추정됨)
근로청소년	501	75.5%

한편 청소년의 음주양상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이 음주를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소년원생의 경우 14.2세인데 반해 학생청소년의 경우는 13.3세이다⁷⁾.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청소년에 비해 비행청소년이 늦게 음주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이 즐겨 마시는 술의 종류는 막걸리, 소주, 맥주의 순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막걸리나 맥주를 즐겨 마시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주를 즐겨 마신다⁸⁾. 한편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녀의 음주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철 외의 연구에 의하면 음주경험이 있는 소년원생 중 21.6%만이 부모가 모두 자신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1.1%는 부모 모두 자신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생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음주경험자의 25.0%가 부모 모두 자신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42.2%의 학생들이 부모 모두 자신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⁹⁾.

음주와 청소년 범죄의 관계에 관한 김정기 외의 연구에 의하면 소년

원생의 24.2%가 취중에 비행을 하였으며, 재산범의 경우에 9.2%가 취중에 비행을 한 반면 폭력범과 강력범의 경우에는 각각 37.9%, 37.0%가 취중에 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¹⁰⁾.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음주가 범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질을 더욱 포악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주는 범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공격성과 불안성향을 증가시킨다. 음주와 공격성의 관계를 연구한 박두병 외의 연구에 의하면 음주를 좋아하고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청소년은 높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¹¹⁾. 또한 이길홍 외의 연구에 의하면 음주를 하는 청소년들은 심리적 불안성향(공포, 불안등)과 중추신경계 불안성향(악몽, 불면등)이 높다고 하였으며, 재해근로자의 19.7%가 전날 마신 음주가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¹²⁾.

(3) 청소년 음주의 원인

흡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음주도 성인들의 행동을 선택적으로 모방한 일종의 저항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저항행위 대상은 입시경쟁의 문화가 주 요인이다. 입시경쟁 상황에서 지쳐 있거나 그 경쟁에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공부할 것을 강요하는 학교나 가정의 요구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 사실 우리 사회는 입시경쟁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그 경쟁에 관심이 없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자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교육방송, 독서실이나 도서관, 학원, 과외교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후자의 청소년들에게는 입시경쟁 이외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여가시간을 친구들과 어울려 산이나 공원,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시면서 보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저항행위의 대상은 입시경쟁의 문화뿐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청소년 음주의 원인은 가정내의 문제이다. 청소년들은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 가정의 경제적인 곤란, 부모

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등으로 자신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을 참지 못하여 음주를 하기도 한다.

청소년 음주는 대부분 저항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심리적 문제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서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우 청소년 음주의 원인은 그들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며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체육부가 1989년 실시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는 이유는 피로움을 잊기위해(26.7%), 잠을 안자기 위해(25.8%), 호기심으로(17.9%), 황홀감이나 신비감의 추구(17.3%) 등으로 나타났다¹³⁾.

한편 문화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음주는 성인들의 음주문화에 기인한다. 즉, 음주문화의 발달로 인해 향락산업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그밖의 여가산업은 일부 부유층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 찾는 곳이 대부분 술집이되는 경향이 있다. 단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술집과 같은 유흥업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주로 산기슭, 공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집 등에서 음주를 한다.

(4)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한 대책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책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입시경쟁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일부의 청소년들에게는 과잉지원을 또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관심의 결여를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관심영역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입시경쟁 구조의 개선이 요구되며, 그와 더불어 학교에서 학생들의 특별활동, 학생문화서클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학교에서 음주문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흡연문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음주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해독과 음주행위를 유발하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친구집단의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를 유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음주를 시작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음주를 하는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행정당국, 경찰, 교사, 지역사회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음주와 약물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각 주정부 산하에 “Task Force”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다. 이것은 일종의 주정부 지원단체로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정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도 한다. 단체의 구성원은 주정부의 약물 및 음주문제 담당자들과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청소년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법적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들이 자신들이 음주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려고 할 경우, 그들을 대상으로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판매자나 고용인이 본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업소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변화가의 상업지역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업소들이 고정되어 있다. 각 업소들마다 소위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업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을 대상으로한 단속이 얼마나 관례적인 것인가를 짐작케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나 현재와 같은 관례적인 단속으로는 아무리 처벌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5) 청소년 음주에 대한 지도방안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청소년들도 우연한 계기에 의해 음주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들은 시험이 끝난 후, 체육대회, 수학여행, 친구들의 생일 등과 같이 들뜬 분위기에서나 동료와 싸우고 난 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은 후와 같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한두 번쯤 음주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의 음주는 대부분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두 번의 음주경험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음주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인 음주행위를 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가정이나 학교생활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은 한두번의 음주경험으로 습관적인 음주자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들뜬 분위기에서 발생하는 음주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들이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건전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득이한 경우에 음주를 하게되더라도 부모와 교사가 동석하여 예의범절을 어기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가정이나 학교에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청소년이라도 자신의 성격이나 이성친구문제와 같은 개인적인 고민으로 음주를 하게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음주행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에 고민이나 걱정거리 혹은 가정내의 문제를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 상대자가 없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고민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음주를 할 우려가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한두번의 음주를 넘어서 친구들과 함께 산이나 공원에서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고, 심지어는 술집을 자주 드나들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 여러가지 문제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단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여 음주를 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근철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42.2%가 부모 모두 자신의 음주사실을 알

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부모들의 주의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두번의 음주 경험이 있을 때 부모의 엄격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습관적인 음주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음주행위가 발견되면 자녀와 함께 음주를 하게된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고 그 원인을 찾도록 한다. 또한 부모들은 가정불화,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간섭으로 자녀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편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지도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의 문제행동은 단지 음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흡연, 유흥장의 출입, 폭력, 가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동의 원인도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더구나 그러한 청소년들의 부모가 자녀의 지도를 포기하거나 자녀의 행동에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는 경우,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더욱 심각해 진다.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교사들 뿐이다. 그러한 학생들 중에는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도, 교사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교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상담해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문제집단의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그들의 집안사정이나 개인적인 고민거리를 충분히 파악한 후 부모들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해야한다.

- 1) Winokur.G.(1968), Alcholism, its facets and phase, London, New York Teh Jon Cay Company, Oxford.
- 2) 민병근외(1979), 한국청소년의 음주 빈도 및 음주 양상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적 연구, 오늘의 청소년, 제3집, 중앙대학교 영신아카데미 연구원 한국청소년 문제연구소.
- 3) 이길홍외(1985), 학생청소년의 불안성향과 음주 유형과의 관계분석, 한국의 과학, 제17권, 제1호.
- 4) 이근철외(1987), 청소년 음주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의학회, 제26권, 제2호.
- 5) 이길홍외(1983), 근로청소년의 산업재해와 음주 양상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산업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 과학, 제15권, 제1호.
- 6) 체육부(198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7) 이근철외, 전제서, p.72.

- 8) 민병근외, 전개서, p.69.
- 9) 이근철외, 전개서, p.73.
- 10) 김정기외(1983), 비행청소년의 범죄 양상과 음주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의대지, 제8권, 제3호.
- 11) 박두병외(1984), 학생청소년의 음주 양상과 공격성과의 상호 관계, 중앙의대지, 제9권, 제4호.
- 12) 이길홍외(1985). 전개서, p.106.
- 13) 체육부, 전개서, p.59.

3. 약물남용

최근들어 국민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본드,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질식사, 폭발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종종 보도되면서 청소년 약물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 청소년의 약물남용 사례

다음의 내용은 친구들과 어울려 본드를 흡입했던 청소년의 행동사례이다.

약물남용 사례 I

“오후 6시 경에 친구와 나는 고대부속병원 잔디밭으로 놀러갔습니다. 가서 보니 4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나는 본드를 사왔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만나서 본드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드를 세번 정도 마시고 비닐봉지를 담장너머로 버리고 산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도중에 경찰아저씨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저희들을 보더니 입냄새를 맡았습니다. 저희들은 증거물을 가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약물남용 사례 II

“저는 토요일 오후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본드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에 올라가서 본드를 마신 것은 5번쯤 됩니다. 본드 구입에 필요한 돈은 친구들끼리 서로 모아 사서 숨겨 놓고 마셨습니다.

제가 본드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지난 겨울 방학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부터 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마시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습관이 된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2)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

청소년 약물남용의 문제는 약물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은 물론 약물남용으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는 어떠한 댓가를 치루더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이다¹⁾. 여기서는 그 동안 의학계에서 이루어진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길홍 외의 연구와 백명기 외의 연구는 12-21세의 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사한 연령의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의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내용과 척도가 대부분 동일한 것이어서 조사대상이나 조사시기에 따른 약물남용의 실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1980년 9월에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실태를 조사한 백명기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년원생(571명)의 44.3%가 1회 이상 약물을 남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한편 1983년 12월에 중고등학생과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실태를 조사한 이길홍 등에 의하면 중고등학생들(1,404명)의 14.5%, 소년원생(471명)의 41.6%가 1회 이상의 약물남용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다음의 [표 7]은 두 연구에 의한 약물남용 경험율을 비교한 것이다.

[표 7] 청소년의 약물남용 경험율(A)

연구자	조사시기	조사대상	약물남용 경험율
백명기 외	1980. 9.	소년원생 571명	44.3%
이길홍 외	1983. 12.	학생 1,404명	14.5%
		소년원생 471명	41.6%

위의 두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에 비해 소년원생의 약물남용율이 매우 높으며, 1980-1983년 사이에 소년원생의 약물남용율이 약간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89년 체육부가 전국의 학교청소년(2,724명), 근로청소년(501명), 비행청소년(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경험율은 [표 8]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⁴⁾.

[표 8] 청소년의 약물남용 경험율(B)

(단위 : %)

약물유형	학생청소년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
음 주	48.0	75.5	93.1
흡 연	33.1	28.2	96.1
각 성 제	29.7	37.3	34.8
본 드	4.4	6.7	47.1
대 마 초	1.9	1.7	28.5
안 정 제	5.2	4.3	31.8
최 먼 제	6.7	10.2	18.9
마 약	0.7	0.9	9.4
히 로 뽕	0.7	1.4	9.6

<표 8>에서와 같이 소년원에 재소중인 비행청소년은 학교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에 비해 모든 유형의 약물남용율이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남용하는 약물은 각성제이며, 소년원생들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항히스타민제, 신경안정제, 환각제 등을 더 많이 남용하고 있으며⁵⁾ 특히 비행청소년의 경우 최근에는 흡입제를 남용하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약물을 최초로 남용하기 시작하는 연령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은 11세 이하가 많으나 그 후 16세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년원생의 경우에는 [표 9]에서 처럼 16-17세에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6),7)}

또한 약물 중에서도 1970년대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던 대마의 남용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975년에 전국의 28개 도시 및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5.6%가 대마흡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⁸⁾. 또 1978년에 전국 13개 도시 및 농어촌의 12-21세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청소년의 대마흡연 경험율이 2.1%라고 보고하고 있다⁹⁾. 이

처럼 3년 사이에 대마흡연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1975년부터 대마흡연을 강력하게 단속하였기 때문이다.

[표 9]

최초 약물남용 연령

(단위 : %)

연령별 연구자	연구 대상	11세이하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이상
이길홍 외	중 고 생 (1,404명)	22.4	12.7	11.4	14.5	14.9	11.0	8.3	4.8
	소 년 원 생 (471명)	6.9	1.8	5.1	6.9	12.4	24.0	18.4	16.6
백명기 외	소 년 원 생 (571명)	5.9	2.4	4.7	7.1	14.6	25.3	22.1	16.2

약물남용빈도를 보면 중고등학생 약물남용자 중에서는 5.8%만이 상습남용자인데 반하여 소년원생 약물남용자 중에서는 31.1%가 상습남용자였다¹⁰⁾. 중고등학생과 소년원생은 약물남용에 대한 동조의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의 59.7%가 처벌을, 21.5%가 용서를 희망한 반면 소년원생 중에서는 41.0%가 처벌을, 34.5%가 용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3)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은 약물남용을 시작하기 전에 습관적인 거짓말, 음주, 흡연, 불량한 학교생활, 가출, 도벽 등 여러가지 일탈행위를 한다. 일탈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탈의 증세를 보이는 청소년들이 결국은 약물남용자가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을 심리적 원인과 사회문화적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들이 약물남용자가 되는 심리적 원인은 약물에 대한 호기심과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한 열등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으로 본드 등의 약물을 접할 기회를 가진 청소년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물을 남용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실험해보려는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초기 약물남용자들의 대부분은 약물남용이 나쁜 행동이라고 막연히 알고는 있어도 그것이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며 신체적으로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약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약물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강하다. 더우기 일탈증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약물남용이 창피하거나 숨겨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흔쾌한 경험이 된다.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문화적 원인은 일탈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주위에는 어디나 약물남용을 일상생활화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탈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일상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집단을 찾으려고 한다. 청소년 범죄집단은 그러한 청소년들을 찾아 자신들의 세력범위를 넓히려고 한다. 그 집단은 새로운 구성원을 돌보아주며 자신들의 활동에 참가시킨다. 청소년 범죄집단의 일상생활은 돈뺏기, 소매치기, 약물남용, 폭력사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 구성원이 된 청소년들은 그러한 활동에 참가하면서 습관적인 약물남용자가 된다.

또한 폭력, 성관계, 범죄 등을 주제로한 불법비디오, 만화, 영화 등도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부추이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약물남용으로 인한 환각상태 속에서 마치 자신이 비디오나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된듯이 행동한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약물을 남용하는 이유로는 잠을 안자기 위해, 호기심 때문에, 괴로움을 잊기 위해, 황홀감이나 신비감을 느끼기 위해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체육부가 1989년에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각한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 압력, 가족관계, 스트레스 등이 청소년 약물남용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크게 치료적 이유, 상황적 이유, 쾌락적 이유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¹²⁾.

(4) 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책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은 약물의 공급 및 수요 억제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청소년들이 주로 남용하고 있는 약물의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이 주로 남용하고 있는 약물은 본드, 부탄가스 등의 흡입제, 또한 치료를 목적으로 생산되지만 과량 복용할 경우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각종 약, 대마, 메스암페타민¹³⁾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흡입제와 각종 약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남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드, 부탄가스, 각종 약 등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특정 약물의 공급이 억제되면 청소년들은 다른 약물을 남용하곤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본드흡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청소년들이 쉽게 살 수 있는 30g짜리 가정용본드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근래에 본드를 흡입하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톨루엔을 사용하고 있는 250g짜리 가정용 본드를 사용하고 있다. 본드나 부탄가스, 각종 약 등이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억제가 어렵다면, 대마나 메스암페타민은 그 유통과정이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폭력조직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공급을 제지하기가 어렵다.

일부 학자들은 약물의 공급억제가 결코 약물남용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약물의 공급을 억제하면 약물의 가격이 비싸지고 그렇게되면 약물의 생산과 판매로 인한 이익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음성적인 약물의 생산과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남용하고 있는 약물(본드, 부탄가스, 각종 약)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것이므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한 공급을 억제한다고해도 전체적인 생산유통 과정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약물의 공급을 억제할 수 있다면 적어도

공급이 억제된 약물의 남용은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향정신성의약품류나 한의마약류로 지정된 약들은 14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매자는 판매대장에 구입량과 자신의 신원을 기록하고 날인하도록 되어있다. 본드나 부탄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경우 신원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본드나 부탄가스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흡입제 남용문제를 다룬 책자를 배포하거나, 철물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흡입제 남용문제를 주제로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사들의 경우에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의 종류와 그 해독을 잘 알고 있는데 반하여 철물점이나 부탄가스 등을 판매하는 상점에서는 환각제 남용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약물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은 약물남용 예방교육활동과 약물남용 청소년들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약물남용 예방교육은 학교교육의 일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회교육의 일환으로도 실시될 수 있다. 학교교육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시간, 학급토론시간 등을 이용하여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생물, 도덕, 교련 등의 정규교과목 시간에 약물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통한 예방교육은 실제로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많은 집단, 예를 들면 학교중퇴자나 시설수용자 등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 그들을 대상으로한 약물예방교육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홍보책자를 만들거나 약물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방영할 수 있다. 또 약물남용의 가능성이 많은 특정집단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특별 강의, 슬라이드 상영, 계몽영화 상영, 중독자 체험 소개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의 일부이든, 사회교육의 일환이든간에 약물남용 예방교육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켜 오히려 약물남용을 부추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교육이외에 부모나 교사, 약물남용자의 예방과 치료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다 심도있는 교육활

동도 요구된다.

약물남용 청소년들에 대한 대응방식으로는 약물검사(drug testing) 실시, 약물남용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 및 재활기관의 설립 등이 요구된다¹⁴⁾. 약물검사는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이나 그 주변을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약물남용자들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약물남용자로 발견된 청소년은 처벌보다는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약물남용자로 발견된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초범이면서 다른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경우 훈방되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훈방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은 치료나 재활단계를 거치지 않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시 약물남용에 빠지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물의 공급 및 수요에 관한 유통과정을 철저한 법적 규제를 통해 관리·감독한다.

둘째, 전국적인 국민 계몽 운동을 통해 약물남용의 유해성을 홍보한다.

셋째, 약물남용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와 청소년 관련기관에 보급한다.

넷째, 약물남용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5)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지도방안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구관계를 파악하며, 부모가 자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그 밖에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약물남용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알아본다.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약물을 남용하기 전까지는 약물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들은 TV나 소문으로 본드나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약물남용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주위의 친구나 선배들을 따라 호기심으로 약물을 남용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약물남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정확하게 수정을 해주어야 하며 또한 약물남용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약물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때 오히려 약물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한다.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약물남용의 결과를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를 실험해 보려고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보고되었다¹⁵⁾.

- 약물 X를 사용하면 반드시 Y상황이 발생한다.
- 약물 X를 사용하면 결코 Y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 오직 약물만이 문제일 뿐이다.
- 비합법적인 약물만이 남용된다.
- 약물남용은 전적으로 청소년만의 문제이다.
- 미래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포를 유발하거나 위협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3) 약물남용을 하였을 경우 약물남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조심스럽게 문제점을 지적한다.

약물남용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지도할 경우, 그에게 약물남용을 하게 된 개인의 상황과 과정을 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한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본드나 부탄가스, 각종 약 등의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은 심각한 일탈 증세를 보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4)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꾸준한 인내를 갖고 지도한다. 약물남용의 초기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지도를 잘 따르지만 기

회가 있으면 다시 재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도과정의 초기단계에서 문제해결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소년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또 습관적인 약물남용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쉽게 약물남용을 중단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도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일단 약물남용을 중단시키는데 성공했다라도 재남용이 발생하는가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적절한 지도의 결과로 약물남용을 중단하였더라도 약물남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기회가 닿으면 다시 약물을 남용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약물을 남용할 당시의 친구관계나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재남용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친구관계나 일상생활의 유형은 갑자기 바뀔 수 없으므로 일단 약물남용을 중단한 경우에도 재남용이 발생하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체육부(198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 연구원.
- 2) 백명기외(1981), 비행 청소년의 약물사용 빈도 및 약물사용 양상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0권, 제2호.
- 3) 이길홍외(1985), 청소년 비행의 약물상관 변인 분석, 한국의 과학, 제17권, 제2호, p.46.
- 4) 체육부, 전계서, p.10.
- 5) 이길홍외, 전계서, p.48.
- 6) 이길홍외, 전계서, p.50.
- 7) 백명기외, 전계서, p.44.
- 8) 민병근외(1975), 한국청소년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청소년의 대마초 흡연양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서울.
- 9) 민병근(1978), 한국청소년의 대마초 흡연실태에 관한 종단적연구, 한국의 과학, 제12권, 제3호.
- 10) 이길홍외, 전계서, p.47.
- 11) 이길홍외, 전계서, p.53.
- 12) 체육부, 전계서, p.57.
- 13) 메스암페타민은 속칭 “히로뽕”이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히로뽕은 각성제의 일종인 “Philopon”의 일본식 발음에 불과함으로 여기서는 공식적인 학술용어인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14) 1989년 현재 약물남용자들을 위한 치료를 위해 19개의 병원(315병상)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1992년 개원을 목표로 부산에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센터가 전립 중이다. 이러한 치료시설은 주로 대마, 메스암페타민,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있는 성인 약물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흡입제나 각종 약물을 주로 남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시설의 설립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5) 체육부, 전게서, p.424.

4. 가 출

청소년의 가출은 개인적·사회적 요인에 의한 심각한 문제로 인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상태에서 사소한 이유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혼자서 집을 나가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가출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 후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고 곧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집을 나가 비행소년이나 범죄소년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1) 청소년의 가출 사례

다음은 고등학생의 가출 사례를 소개한 내용이다.

가출 사례 I

“1988년 3월 31일 저는 부모님께 학교에 간다고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것은 공부를 못해서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막상 책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공부 잘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시험을 못본 사람은 혼날줄 알라고 말씀하시고 부모님께서도 공부 좀 하라고 자주 야단을 치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때는 생각도 곰곰히 하지 않고 무조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침에 부모님께 학교에 간다고 말하고 도서관에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11시 30분 정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싸고 돈 3만원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도중에 친구를 만나서 같이 갔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중국집에서 점심을 사먹고 동아일보 신문사로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집에다가 편지를 쓰고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신문배달부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보니 집생각이 나고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되어 나흘째 되던날 친구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서야 집이 좋고 학교가 좋다는 것을 다시금 알았습니다.”

가출 사례Ⅱ

“5월 24일 화요일 밤 엄마와 아빠가 싸우셨다. 아빠는 나와 엄마를 때리며 물건을 집어 던지셨다. 나는 내가 맞는 것은 괜찮지만 엄마를 때리는 아빠의 행동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그 길로 도망쳐 집앞 놀이터에서 밤을 세우고 새벽에 집에 가서 가방을 싸는 동안 아빠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 들어보니 공부도 못하면서 수업료 내기가 아깝다는 내용이였다. 나는 학교에 간다고 나가서 야간학교에 다니는 친구네 집에 가서 휴학계를 냈다고 이야기하고 친구와 함께 시내에 나갔다. 친구는 학교에 가고 나는 혼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만화가게에 가서 비디오를 보다가 거기서 잠을 잤다. 다음날 나는 분식점에서 라면을 사먹고 서울랜드에 가서 롤라스케이트를 타고 놀다가 벤취에 누워 잠을 잤다. 저녁 무렵 잠을 깨서 서울랜드를 나와 전철을 타고 사당역으로 와서 라면을 사먹고 여인숙에 가서 잤다. 다음날 배도 고프고 돈도 떨어져 집으로 들어가 엄마한테 잘 못했다고 빌었다.”

(2) 청소년 가출의 실태

청소년기는 외부 환경에 민감한 반응과 변화를 보이는 시기로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적 행동인 가출과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¹⁾.

그러나 청소년 집단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구성원들로 모여 있기 때문에 청소년 가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에 관한 종래의 연구들은 연구자에 의한 조사자료 이외에 정부나 사회기관이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있다²⁾. 기존의 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진 청소년 가출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가출율을 보면 중고등학생의 16%, 소년원생의 64.7%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³⁾. 특히 소년들은 가출 총동에서는 소녀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실제 가출율은 소녀들보다 3배 가량 높았다.⁴⁾

한편, 가출 청소년들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내무부 치안국의 소년계 종합통계를 이용한 이정자의 연구에 의하면 1970년 가출 청소년 중에서 12세 이하의 청소년이 15.2%, 13-15세의 청소년이 32.5%, 16-19세의 청소년이 52.3%였는데, 1972년에는 12세 이하의 청소년이 20.7%로 늘어났고 13-15세와 16-19세의 청소년은 각각 29.0%와 50.3%로 줄어들었다⁵⁾. 이러한 경향은 최근 서울 남대문 경찰서 김수환 소장이 1989년 4월 1일 부터 1990년 5월 31일 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직접 목격한 가출 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즉 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학생 30.8%, 중학생 52.9%, 고등학생 16.3%로 나타나 12세 이하와 13세-15세의 가출 청소년은 매년 늘고 있으며 16세 이상은 오히려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동기는 가정 문제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내무부 치안국의 자료를 이용한 두 연구를 비교해 보면 가출의 동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1971년의 자료에 의하면 가출동기는 가족빈곤(16.9%), 가족불화(14.8%), 가족방임(12.0%), 도시동경(9.4%), 교우관계(8.9%), 구직관계(8.7%), 가족엄격(3.9%), 벌책(3.9%), 진학관계(2.1%), 기타(19.11%)의 순이었다⁷⁾. 그러나 1980년도 자료에 의하면 가족불화(22.8%), 가족방임(10.4%)이 가출의 주된 동기가 되고 있다⁸⁾. 두 연구에 나타난 1971-1972년의 자료와 1979-1980년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가족빈곤, 가족방임, 도시동경, 구직관계 등으로 인한 가출은 줄어들고,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비행청소년의 가출동기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문제, 교우문제, 이상실현, 무작정 상경 등으로 인해 가출하는 청소년은 저연령층일수록 많고, 직장문제, 학업실패, 이성관계 등으

로 인한 가출율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가출 동기가 주로 가정의 문제로 좁혀지면서 가정내 어떠한 특징이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중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12세이상 21세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출 실태를 조사한 김현수의 연구는 가정내 문제유형, 부모의 결합상태, 훈육방식, 가정의 안정도, 부모-자녀관계 등이 청소년들의 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⁹⁾.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내 문제유형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정내 문제가 없는 학생의 가출율은 11.5%인데 반해 부모에게서 불신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가출율은 24.7%, 계부모 가정 학생의 가출율은 23.5%, 부모의 불화가 잦은 가정의 학생의 가출율은 18.5% 등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합형을 '친애 및 수용형'과 '부조화된 결합형'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후자에 속한 학생들의 가출율은 18.6%이고 전자에 속한 학생들의 가출율은 12.9%였다. 부모의 훈육방식은 훈육방침의 민주성, 훈육의 유연성(자유의 구속정도), 규율의 엄격성, 자녀에 대한 신뢰도, 자녀중심도, 상벌태도 등을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훈육방식이 자녀들의 자유를 구속할수록, 자녀들을 불신할수록, 또한 가정의 일을 어른 중심으로 처리할수록 청소년들의 가출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안정도는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협동심, 가정의 긴장도, 가족의 의견조화도, 부부화합도 등의 항목을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족의 의견조화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항목이 가출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접촉하지 않을 경우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출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혼자서 가출하기 보다는 친구와 어울려 가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한 경향은 표갑수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178명의 가출아동 중에서 혼자서 가출한 아동은 36.5%이고 친구와 같이 가출한 아동이 58.4%, 형

제자매와 가출한 아동은 3.4%였다¹⁰⁾. 가출한 청소년들은 주로 변화를 배회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다니며, 그 밖에 아는 사람을 찾아 다니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소녀들(11%)은 소년들(2%)에 비해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다녔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¹¹⁾.

(3) 청소년 가출의 원인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 가정내의 문제, 사회문화적 요인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먼저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이 어떻게 가출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청소년기는 인생관의 문제, 친구관계로 인한 문제, 이성교제에 관한 문제, 진학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로 고민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좌절감이나 번민,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며, 그러한 감정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방황하거나 가출, 비행 등의 일탈행위를 하게된다.

청소년기의 독특한 심리적 특징 중의 하나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안진에 의하면 성적 관심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는 남녀 모두 16세경이라고 한다¹²⁾.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 친구들과의 대화, 매스컴이나 상업광고에 의한 성적 관심의 자극 등으로 성에 대한 관심과 의문이 많아지며, 일부 청소년들은 성적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출하기도 한다.

청소년기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독립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즉, 청소년들은 어린이로 취급받는 것을 싫어하여 어른답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혼자서 생활해보려고 시도하거나 어른의 역할을 모방 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한편으로 독립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있게 맡은 일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부모들과 갈등을 자주 겪는다. 청

소년들이 부모들의 지도나 간섭에는 쉽게 반항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자신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에도 쉽게 불만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녀의 행동을 방임하면 가출이 발생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특징은 가족보다는 친구집단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시기라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더이상 어린이로 취급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어른으로 대우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자신들 나름대로의 하위문화를 형성한다. 청소년들은 때로 가족보다도 친구집단에 더 강한 소속감을 가지며 부모의 충고보다는 친구들의 제안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심한 좌절과 번민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더욱 그렇다. 그러한 친구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가출함으로써 집단적인 가출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가정내의 문제가 어떻게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출의 구체적인 동기가 주로 가정내의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정내의 문제가 가출의 주된 원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계부모 가정,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가정의 경우에는 계모나 계부와 의 갈등, 편애, 방임, 학대, 가정불화 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청소년들은 그러한 가정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가출하게 된다. 또한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부모의 불화, 부모의 지나친 간섭 혹은 기대, 자녀에 대한 관심부족 혹은 방임 등으로 자녀들이 반발심을 가지게 되어 결국 가출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이나 가정내의 문제에 못지않게 비교육적 환경, 입시경쟁, 가치관의 갈등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도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비교육적인 환경이 최근에 들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성관계, 폭력, 비행 등을 주제로 한 잡지나 영화, 성적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상업광고, 롤러스케이트장, 디스코텍, 스탠드바 등의 유흥업소, 성인들의 문란한 퇴폐행위 등은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가출을 부추이고 있다. 입시경쟁이나 그로 인한 학교

생활의 경직화도 청소년 가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경직된 학교생활을 담당하게 여기는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여러가지 저항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동료들로부터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한다.

따라서 학교성적이 나쁘거나 갑자기 성적이 많이 떨어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앞에서 소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나 교사들의 입시 우선적인 가치판단에 반항하여 가출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가출이 증가하는 것은 산업사회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해체와 핵가족화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사회가 해체되고 핵가족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통사회와는 달리 이러한 가치관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대간 가치관의 갈등으로 청소년들의 가출은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70년대 초반에는 가족빈곤이 청소년 가출의 주된 동기였으나 1970년대말과 1980년대 초반에는 가족빈곤으로 인한 가출이 줄어들고 가족불화나 가족방임에 의한 가출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4)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대책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청소년 가출문제를 위한 사회적 대책을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청소년 가출을 각 가정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요망된다.

현재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방식은 그들을 연고자에게 되돌려 보내거나 가출청소년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무부 치안본부의 「소년보호 종합분석」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이 경찰에 보호되거나 발견되었을 경우 발견된 전체 가출 청소년(13,013명)중 연고자에게 인계된 비율이 44.2%, 귀향조치를 받은 비율이 41.5%, 가출

청소년 수용시설에 수용된 비율이 8.6%, 기타 취업 혹은 시설에 인계된 비율이 5.7%로 보고되었다¹³⁾. 한편 가출 청소년으로 신고되었으나 발견되지 않아 수배중인 청소년의 수가 발견된 가출 청소년의 수보다 다소 많은 13,603명이었다. 결국 발견된 가출 청소년 중에서 85.7%가 부모나 친척에게 돌려보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고자에게 인계되거나 귀향조치를 한 경우에도 사후 보호과정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재가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문향외는 가출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귀가조치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귀가조치시키는 경우, 30.5%의 청소년이 '즉시 집을 나오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9%의 청소년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¹⁴⁾.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출 청소년을 단순히 귀가조치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출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출 청소년을 위한 수용시설은 단지 '수용'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그러한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그들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을 중간에서 착복하여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빚은 시설도 있으며, 시설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와 폭행이 가해지는 경우도 가끔 보고되고 있다.

또한 비행 청소년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상담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서울시에 2개의 아동상담소가 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실제로 아동상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형편이다. 따라서 스스로가 가출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청소년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상담소나 가정문제 상담소 등을 확대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관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가 배치와,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 교육학 등의 관계분야를 전공한 자원봉사자 활용문제를 아울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일종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사회복지관에 일정한 기간 머물면

서 취업준비를 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적응훈련을 받는다. 또 그들이 사회복지관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도 충분한 적응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회복지관이나 그 자매기관을 방문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초기의 가출은 주로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발생하므로 학교에서도 가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는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주로 처벌위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일시적인 반성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문제학생으로 낙인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학교가 가출 청소년을 적절하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상담을 전공한 상담전문교사를 임용해야 한다. 현재 각 학교에는 상담교사가 있으나 상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상담 교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지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몇가지 어려움이 따르며, 무엇보다도 학교측이 시설관리 책임자로서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학교는 전국에 걸쳐 설립되어 있으므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오후, 휴일, 방학 등의 상당한 기간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 시설을 상당한 기간동안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가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와 교사들은 청소년들의 모든 것을 학교성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학교공부 이외의 다른 것에 흥미를 느낄 시간적 여유

를 갖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입시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공부 이외에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의 취미를 살리고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한가지 기준으로 모든 청소년들을 서열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 많은 분야에서 그들의 자질을 함양시켜 주므로써 모든 청소년이 각각의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가출 청소년의 지도방안

가출한 청소년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도 막상 그들을 실제로 지도하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각 사례별로 독특한 상황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소년 가출의 구체적인 지도방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한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 중에 하나는 독립성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모나 교사의 일방적인 충고는 자신들을 어린이로 취급하려는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더이상 어린이로 취급되는 것을 싫어하고, 어른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며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부모나 가족의 체면을 중시하여 자녀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시도하게 된다. 반대로 모든 일을 자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도 무관심으로 여겨져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파악한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나 가족보다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친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학교, 독서실, 오락실, 공원, 골목 등 그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 자주 만나는 또래들과 쉽게 친구를 사귀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량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비행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다면 그 친구들의 부모들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부모가 자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며, 특히 부모가 자녀의 모범이 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 중에는 부모간의 불화가 있는 가정이 많으며 이러한 가정의 부모들은 스스로 자녀들을 지도할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게 된다. 모든 가르침이 그렇듯이 자녀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훈계보다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추거나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

4) 자녀가 가출해서 다시 돌아왔을 경우 가출하게된 과정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것은 지도하는 사람이 가출한 청소년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가출한 청소년은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때 청소년의 이야기가 변명을 위주로 한다거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이야기한다면 이는 듣는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청소년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 가출한 청소년은 자신을 충분히 이해주는 사람에게 개인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불만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5)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

일반인으로서의 가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가출이 지능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든가, 정신분열적 요소, 성격장애적 요소로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인으로서의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므로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Jenkins, R.(1971), The runaway reaction, Am. J. Psychiatry, Vol 128, p.165.
- 2) 정부나 사회기관의 통계자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수집한 것이므로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연구자들에 대한 사회조사는 특정집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특정지역에서 배회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임의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 3) 김현수(1980), 청소년 가출의 가족 역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 과학, 제12권, 제3호, p.66.
- 4) 기백석외(1981), 비행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 과학, 제20권, 제2호.
- 5) 이정자(1973), 청소년 가출의 요인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 6) 한국일보, 1990년 6월 10일.
- 7) 이정자, 전게서, p.25.
- 8) 전유자(1982), 한국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 9) 김현수, 전게서, p.78.
- 10) 표갑수(1980), 아동의 가출원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집.
- 11) 전유자, 전게서, p.45.
- 12) 유안진외(1984), 인간발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p.192.
- 13) 내무부(1981), 소년보호 종합분석, 서울: 내무부 치안본부.
- 14) 김문향외(1975), 가출청소년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연구, 제9집.

5. 폭 력

청소년들의 폭력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하 교내폭력이라 함)은 주로 학생들 간의 오해나 감정싸움으로 발생하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이하 교외폭력이라 함)은 대개 학생폭력씨클의 구성원들에 의한 것으로 폭력 뿐만 아니라 금품갈취와 같은 범죄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1) 청소년의 폭력 사례

다음의 폭력 사례는 교내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폭 력 사 례

“학기초 4월 중순에 주변조회를 할 때였습니다. 월요일부터 1학년의 어떤 아이가 저를 자꾸 위아래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3학년인줄 모르나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화요일에도 자꾸 쳐다보기에 그 아이에게 주변조회 끝나고 3학년 7반 교실로 왔다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저희반으로 불러왔는데 애기를 하기도 전에 ‘야! 나 69년생이야 너네랑 나이 똑같아!’ 그러더군요(사실 이 학생은 70년생으로 2학년 학생들과 같은 나이였다). 주위에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애기만 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고3 친구들이 많다는니 너네랑 동갑이라느니 하면서 자꾸 그러길래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몇대 때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 아이가 우리반에 왔길래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말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아이가 69년생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옆에 있던 친구가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알았다

고 하고 다음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뒤 몇번을 재촉하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2) 청소년 폭력의 실태

청소년 폭력의 유형 및 특성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어서 기존의 연구 결과 역시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폭력의 실태는 사례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 행위로 인해 학교에서 처벌을 받은 학생들이 쓴 사건진술서와 최근에 보도된 신문 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교내외 폭력실태를 살펴 고자 한다.

먼저 학생들이 작성한 사건진술서의 사례를 통해 교내폭력행위의 대상, 동기,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내폭력의 주된 내용은 상급생이 하급생을 구타하는 것이다. 상급생들이 하급생을 구타하는 주된 이유는 선배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선배의 충고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행동이 불량하다든가 씨클모임에 불참한다는 이유로 상급생이 하급생을 구타하기도 한다. 다음의 사례는 상급생이 하급생을 구타하는 여러가지 동기와 그 방법을 잘 보여준다.

“저희 C.T.A.(씨클이름) 2학년 4명은 전부더 행동이 불량하고 모임에 불참하는 1학년 후배들(5명)을 혼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영숙이는 C.T.A.에서 탈퇴할 때 말도 하지않고 나갔고, 미령이는 C.T.A.의 모임에 불참하는 등 행동이 불성실하였으며, 미경이와 경숙이는 고리바지를 입고, 머리를 파마해서 앞머리를 세우고 다녔습니다. 명숙이는 저희가 1학년 후배 5명 중에서 가장 아끼던 후배인데, 용모와 옷차림이 불량하고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저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들 5명은 저희들이 1학기부터 충고를 하였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선배들에게 인사하고 다닐 것, 앞머리 세우지 말고 파마머리를 풀을 것, 앞머리를 너무 길게 기르지 말 것, C.T.A.활동을 열심히 할 것 등을 이야기하며 종아리 10대, 엉덩이 10대 썩을 때렸습니다.”

교내폭력의 또 다른 형태는 동급생들 끼리의 폭력이다. 동급생들 간의 폭력행위는 주로 평소에 서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 간에 발생한다. 동급생들 간의 폭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심하게 다칠 우려가 있다. 다음의 사례는 동급생들끼리 오랫동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이 폭력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준다.

“경택이와 나는 1학기 때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경택이가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8월 31일 아침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경택이가 내 얼굴을 툭 건드리고 지나갔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1교시 후 경택이를 불러 왜 나를 툭툭 건드리느냐고 말했다. 경택이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화가 나서 경택이를 한 대 쳤다. 2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친구들이 말렸기 때문에 잠시 싸움을 중단했다가 수업이 끝나고 다시 싸웠습니다. 그 때 경택이의 이가 부러졌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내폭력은 개인들 간에 서로 불쾌한 감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이지만 학급간 혹은 학교간에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에 비해 더 과격하고 집단적으로 폭력행위가 발생한다. 다음의 두 사례는 각각 학급간, 학교간에 발생한 집단폭력행위이다.

A. 학급간 집단폭력의 사례

“목요일날 저희 토목과 친구가 전자과 애들 우리 교실로 데리고 와서 때렸습니다. 그 애가 우리반 친구에게 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자과가 통신과와 디자인과 학생들과 함께 우리과 학생들을 혼내주러 온다고 해서 우리는 교실 책상과 의자를 치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과 친구들 2명이 전자과로 가기에 저도 따라 갔습니다. 먼저 간 친구들이 전자과 아이들에게 의자를 던졌습니다. 전자과 아이들도 유리창을 깨고 우리에게 의자

를 마구 던졌습니다.”

B. 학교간 집단폭력의 사례

“H공고생 3명은 지난 15일 밤 10시쯤 창원 시내 체육공원에서 K고교생으로 보이는 10대 4명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날 밤 10시 50분쯤 K고 화장실에 들어가 K고 학생 3명을 집단폭행하고 달아났다. 폭행을 당한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던 급우들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자 K고생 50여명이 각목을 들고 H공고로 몰려가려고하여 이 학교의 기숙사 사감이 말렸으나 그 중 4명이 그날 밤 0시20분쯤 H공고 정문 앞에서 귀가 중이던 H공고생 2명을 집단 폭행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H공고생 40명은 16일 밤 11시50분쯤 각목을 들고 K고로 몰려가 학교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수위실, 본관현관, 유리창 등을 부수고 이를 말리던 기숙사 사감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조선일보, 1990. 3. 19.)

청소년들의 폭력행위는 교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외에서도 발생한다. 교외에서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은 대개 학생폭력씨클을 구성하여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에 의한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교내폭력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첫째로 학생폭력집단은 폭력과 더불어 금품갈취, 절도,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다. 둘째로 그들은 재크 나이프, 목검,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 학생폭력집단은 선량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을 행사하며,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편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다음의 기사는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폭력씨클끼리 편싸움을 벌였던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 남부 경찰서는 25일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구성된 학교 주변 폭력씨클 2개파 1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맘모스파 12명과 범성파 25명은 24일 하오 3시쯤 시흥1동 무지개 아파트 놀이터에서 손도끼, 쇠파이프, 흉기 등을

휘두르며 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대장 및 부대장, 총무, 행동대원으로 폭력씨클을 꾸며놓고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신문, 1990. 11. 26.)

한편 사회정화위원회가 1987년 5월 전국 6대도시 중고등학생 6,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학생의 31.7%가 “폭력배에게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¹⁾. 이처럼 피해를 입은 학생의 상당수는 학생폭력집단에 의해 구타를 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같은 기관에서 1985년 10월에 전국 6대도시의 3,222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8.6%의 학생이 “학교 안에 불량씨클이 있다”고 응답하였다²⁾. 또한 1989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2,365명의 고등학생중 19.9%가, 500명의 재수생중 31.4%가 폭력을 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³⁾. 일본의 笠間達男 外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신입생이 입학한지 얼마않되는 1학기초와 졸업을 앞둔 2학기말, 행사기간 등이 라고 하면서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로는 학교 화장실, 옥상, 교실, 학교전물 주변의 으스스하고 협소한 곳 등을 지적하고 있다⁴⁾.

학생폭력씨클은 다음의 세가지 면에서 다른 유형의 학생폭력에 비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학생폭력씨클이 구성되면 집단의 유지를 위해 해마다 새로운 구성원을 끌어들인다. 일단 씨클의 구성원이 되면 탈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씨클을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집단구타하는 사건을 일으킨 “술벗”씨클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남원의 한 고교생 씨클인 “술벗”은 씨클을 탈퇴하려는 후배들(20명)을 선배들(12명)이 집단구타하여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폭력행위를 하였다⁵⁾. 둘째로 학생폭력씨클은 여러가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폭력행위는 성인 폭력조직에 맞먹을 만큼 대단하다. 예를 들면 90년 3월에 성남시 태평동과 경원대 주변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고교생 불량씨클 “불가사리파” 16명은 재크나이프, 목검,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오락실, 탁구장 등에서 폭력행위

와 금품갈취를 한 혐의로 검거되었다⁶⁾. 세째로 학생폭력씨클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성장하면서 성인범죄집단으로 이동해 가기 때문에 학생폭력씨클이 성인범죄집단과 연계될 우려가 있다.

(3) 청소년 폭력의 원인

일상적으로 폭력행위를 하는 학생들은 일종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 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세워가는 시기이므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매우 사소한 일로도 자존심을 침해받는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려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자존심을 침해하고 열등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사를 하지 않거나 선배의 충고를 무시하는 후배들의 행동, 혹은 함부로 건네는 동료의 말이 아니다. 그러한 행동은 단지 내재된 열등의식을 자극할 뿐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시경쟁의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입시경쟁에서 뒤쳐진 학생들이나 아예 그 경쟁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열등의식을 갖게된다. 대부분의 수업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그들이 수업시간에 할수 있는 일은 다른 동료들을 위해 떠들지 않고 조용히 있는 일이다. 따라서 수업시간과, 방과 후 자습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을 열등감을 확인하며 보내야 한다. 반장을 비롯하여 학급의 임원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차지한다. 시험준비를 돕기 위해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에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결국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행동양식 중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 만을 선택적으로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마치 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하듯이 후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로

부터 선배로서의 대접을 받으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충고 조차도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선배로부터의 지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특히 그러한 충고를 하는 선배들이 존경할 만한 학생들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선배들의 충고를 무시한 후배들, 동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을 한 동료들에게 폭력이 행사된다. 폭력의 직접적인 대상은 자존심을 건드린 학생이지만 결국 그 폭력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준 입시경쟁의 교육체제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일부는 또래들 끼리 폭력씨클을 조직한다. 학생들로 조직된 폭력씨클 중에는 수년간의 전통을 자랑하며, 선량한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널리 알려진 집단도 있다. 폭력씨클에 가담한 학생들은 선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빼앗아 음주, 흡연, 유흥장 출입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학생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우월감을 갖기도 한다.

(4)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교내 폭력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관련된 학생을 처벌하거나 훈계하는 방식으로 폭력문제를 다루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가 학생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학교가 폭력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생활지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활실태조사”는 폭력과 관련하여 교내 폭력씨클의 존재여부, 학급 혹은 비공식적 학생집단간의 알력여부, 폭력을 당한 경험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전문영역을 개발해가도록 한다.

둘째,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도덕교육, 생활교육이 조화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셋째, 학교의 운영에 학생들을 참여 시키고, 많은 학생들에게 책임을 분산시킨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결국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교가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개혁, 학부모들의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학교주변의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전담하는 경찰력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주변의 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때마다 정부는 경찰의 단속을 강화하거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지만 그러나 학교주변의 폭력은 오히려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주변의 폭력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문제를 전담하는 경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학생들의 폭력문제를 비롯한 청소년 건전육성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경찰력의 전문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5) 청소년 폭력에 대한 지도방안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지도는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폭력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한다.

첫째, 가정이나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함부로 친구나 후배들을 대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언행을 조심시킨다. 거친 언행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사기 쉽기 때문에 폭력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도할 때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부모들이 폭력을 사용하여 자녀들을 지도할 경우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켜 동료나 후배에게 쉽게 폭력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는 선후배간에 지켜야할 도리를 정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 교내폭력의 주된 동기가 선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선배의 충고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상급생들은 후배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자신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만을 요구할 뿐 선배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하급생들은 상급생들이 자신들을 지도하거나 자신들에게 충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급생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 따라서 선배와 후배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를 정하여 지도함으로써 교내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우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동체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많은 학생들을 학교일에 참여시키고 교사가 직접 책임을 맡은 학생들을 적절히 통제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하급생들의 생활지도를 상급생들에게 일부 분담시키고 있다. 이 경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맡긴 책임을 철저히 통제하지 않아서 일부 상급생들이 폭력을 사용하여 하급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학생들에 의한 폭력을 예방하는 문제 만큼이나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학생이 불량배에게 돈을 빼앗긴 뒤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공부방 창문에서 25M 아래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⁷⁾이나 폭력배에게 시달린 후 불안감 때문에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건⁸⁾을 보면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정통신문이나 종례시간을 통해 폭력이 잦은 지역을 알려주고, 되도록이면 여러명이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한다. 둘째, 폭력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폭력을 당한 학생이 그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1) 조선일보, 1987년 6월 3일.

2) 동아일보, 1986년 12월 9일.

3) 김준호외(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4) 笠間達男外(1988), 生徒指導 基本事例集, 東京: 學事出版.
- 5) 동아일보, 1986년 8월 28일.
- 6) 중앙일보, 1990년 3월 5일.
- 7) 서울신문, 1990년 11월 16일.
- 8) 서울신문, 1990년 11월 26일.

6. 성 폭 행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범죄의 증가이며, 특히 무죄책감, 집단화, 흉포화, 악물남용과의 관련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10대의 성폭행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 청소년의 성폭행¹⁾ 사례

다음의 내용은 청소년 성폭행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성폭행 사례

“나는 시골에서 살다가 대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해온 뒤로 혼자 떨어져 살면서 매우 외로움을 느꼈다. 급우들이 모두 여자친구가 있다며 만화책에서 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데 나 혼자만 아무것도 모르는 외톨이인 것 같았다. 갑자기 내가 너무 왜소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 2학년 때인 88년 5월 그동안 사귀 친구 8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거리에 나왔는데 돈이 없었다. 한 친구가 밤 12시가 넘어 다니는 여자는 모두 술집여자라 건드려도 괜찮다면 지나가는 20대 여자 한명을 위협해 골목길로 몰고 갔다. 친구들이 먼저 그 짓을 하였고 나도 안할 수가 없었다.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손쉬웠다.

그후 나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져 갔고 마지막 범행은 가정 파괴였다. 그로부터 보름후 J모씨 집에 친구 2명과 함께 복면을 하고 들어가 두 딸 등 3명을 식칼로 위협하고 60만원을 털 후 큰 딸을 가족앞에서 강간하였다. 나는 보름 동안에 6차례 강도·강간을 했다.”

(2) 청소년 성폭행의 실태

위 사례에서 나타난 K군의 범죄행위는 살인을 빼고는 청소년 성범죄

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를 대부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음란만화 등으로 부터 비뚤어진 성을 배우고 불량친구들과 어울리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의없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의 세계에 빠지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재범을 하게 되며 성폭행의 내용도 갈수록 포악해지는 경향이 있다.

89년도 범죄백서에 의하면 강간사건의 경우 29세 이하가 전체의 34.9%(20대는 40%)를 차지함으로써 특히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음을 알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전체 소년범죄는 89년 한해동안 88년에 비해 16%가 증가했으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같은 기간 무려 31.6%가 늘어났다²⁾.

1990년의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범죄의 경우, 강간이 88년의 2,306건에서 89년에 2,427건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³⁾. 그러나 지난해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지역의 성인여성 2,270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피해를 당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비율이 강간 97.8%, 강도·강간 99.5%에 이르러 여러 번 성폭행을 당한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강간 발생건수는 신고된 숫자의 수십배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다⁴⁾.

청소년의 성폭력은 숫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① 약물남용 상태하에서의 성폭력 ② 어린이 성폭행의 증가 ③ 강간후 살해 등 흉포화 ④ 집단화와 무죄책감 등 질적으로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법무연수원이 지난해 전국의 소년원에 수감중인 약물남용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에 의하면 약물복용과 성범죄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본드나 대마초,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여 환각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전체의 51.5%로 약물복용자 절반 이상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⁵⁾.

특히, 어린이의 성폭행은 '세계적인 공통의 문제'로 이미 보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세의 방위병이 국민학교 여학생을 야산으로 유인하여 폭행후 암매장한 사건"⁶⁾ 등 최근들어 어린이의 성폭행 사

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서울대학교 홍강의 교수는 성폭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을 정신의학적으로 실험형, 범죄형, 갈등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⁷⁾.

실험형은 호기심과 충동에 의해 추행이나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를 몇 번 실험삼아 해보는 부류로 일시적인 일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범죄형은 반사회적 성격으로 굳어진 비행 청소년 집단으로, 도덕적 가치 기준과 자기 충동 억제 능력이 결핍되어 일찍부터 성행위를 시작하고 폭력적 비행을 일삼으며 필요하면 강간도 불사하고 대상자를 어린이까지 생각하는 가장 주의를 요하는 형이다.

한편 갈등형은 내적 심리갈등을 많이 간직한 청소년들로, 보통 행동은 난폭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없는 외톨이일 가능성이 많으며 부모로부터 애정적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도 갈등이 심하다. 남성에 대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또래 여자를 사귀거나 성적 접근을 시도하기 보다는 직업적 여성과 관계를 맺거나 연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이성에 대한 열망, 여성에 대한 분노 및 증오심과 같은 집약된 행동으로 성폭행을 자행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성폭행은 집단적으로 행해지며 자신들이 저지르는 범행에 대해 거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심지어는 여중생을 폭행한 뒤 동거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여학생의 부모에게 협박하여 몸값을 요구하기도 하며⁸⁾, 자기집에 세들어 사는 30대 여자를 강간 살해한 뒤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까지 받고 하교하여 사체를 강물에 유기⁹⁾하는 등 청소년의 성폭행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의 사회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하며, 무엇보다도 피해당사자는 상해, 임신 등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자살 등 극단적인 후유증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 사고를 당한 후 극심한 노이로제 증세에 시달리거나 등교 또는 외출을 꺼리는 등 대인 공포증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큰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며칠에서 장기적으로는 수년 동안 공포, 우울, 불안, 모욕감, 복수심, 성관계의 어려움, 생활습관의 변화 등을 겪기도 한다¹⁰⁾.

(3) 청소년 성폭행의 원인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성폭행이 빈발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진단·분석될 수 있는데, 크게 사회환경적 요인과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사회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으로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는 것은 성충동을 부추기는 사회의 향락문화이다. 향락·퇴폐문화를 조장하는 대중잡지, 만화, TV 광고 등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란비디오와 외국 음란잡지의 해악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외국의 외설잡지는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번두리 서점이나 가두 판매대, 학교 주변 문방구, 노점상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성도착증, 변태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음란비디오 테이프도 현재 국내에 350만여개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같이 엄청난 물량의 불법음란물들이 청소년들의 성범죄 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1990년 7월 한국임상성학회에서 실시한 「대도시 청소년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초로 성에 눈을 뜨게 된 계기로 포르노잡지와 음란비디오를 지정한 응답자가 전체의 50.6%를 차지하며 시기적으로는 중학교때(59%)와 국민학교때(20.6%)가 압도적으로 많아 어린 학생들이 성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¹¹⁾.

불법 음란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각종잡지의 외설성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YMCA에서 성인 오락잡지와 주간지 30종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내용 중 36%가 퇴폐 음란 내용을 담고 있거나 성에 대한 가치관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을 하는 잡지 내용의 절반 이상이 연예인 관련기사나 광고에 편중되어 있다. 그레이트비전 청소년 문화연구소가 1990년 7~9월에 발행된 청소년 잡지 7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예인 기사에 관한 내용이 가장 비중이 크며 스캔들, 유머, 외국 유명 연예인들의

이혼, 재혼, 동거사실들을 여과없이 전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 배우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관능적인 포즈를 취한 사진들이 적지 않아 청소년의 윤리적 가치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¹²⁾.

최근 들어서는 대언론사들이 발행하는 스포츠신문 등에 음란한 내용의 만화가 연재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기독교 청년회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2,722명을 대상으로 한「청소년 스포츠신문 구독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9.2%가 스포츠신문의 연재만화를 읽은 경험이 있으며 이를 보고난 후 성충동을 느낀 학생이 전체의 39.2%나 되고, ‘직접 성행위를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4.5%나 되고 있어 스포츠신문의 만화가 청소년들의 성을 크게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또한 사회 구석구석에 분산되어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는 유해환경이 청소년 성폭력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즉, 만화가게, 당구장, 전자오락실, 소극장, 심야다방, 유흥업소, 유흥업소, 여관, 룸카페 등의 유해업소들이 학교주변으로 매우 급속히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들의 음란퇴폐행위, 음화, 음서, 음란비디오의 판매, 대여, 전시 등이 청소년의 성충동을 자극하고 있다.

2) 가정환경적 요인

청소년 성폭력의 또다른 원인은 가정환경의 문제이다. 부모의 애정 결핍으로 청소년들이 가정에 귀속감을 갖지 못해 그 보상을 가정 외부에서 찾다가 결국 성범죄에 빠지게 된다. 정신의학적 분석에 의하면¹⁴⁾, 10대 성폭행자들은 공통적으로 유년기에 충분한 애정의 경험이 부족한 편이며 특히 여성에 대한 분노, 혐오, 증오감에 차있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증가하는 가족해체적 요인인 부부간의 불화, 가족의 무관심, 이혼, 별거, 사별도 청소년 성폭행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남녀관계가 애정과 즐거움의 원천이라기 보다 끊임없는 세력 다툼의 장이되고,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조류하에서 특히 우열감을 증명하려는 일부 청소년들이 자신의 남성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혹은 폭력을 휘두르는데서 청소년 성폭행의 원인을 찾는 시

각도 있다.

(4) 청소년의 성폭행 예방을 위한 대책

청소년의 성폭력은 비정상적인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화적 병리현상으로, 남녀평등의 성문화 정착, 폭력문화를 비판·쇄신하는 범사회적 노력, 향락산업의 규제 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첫째, 학교당국, 학부모, 지역주민, 각종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지속적·조직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범국민적으로 자발적인 계몽 운동이 일어나야 하며 행정당국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유해환경을 폐쇄하고 환경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장시키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향락조장 대중매체에 대한 감시 및 고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관련업계의 자성과 당국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요청된다.

셋째, 성인 자신의 각성과 부모들의 올바른 가정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도덕적 솔선수범과 남녀관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며, 자녀들에게 과도한 공부 압력으로 심리적 아노미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며 사랑과 이해를 갖고 자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적합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및 가정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케하여 그릇된 성의식으로 인한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성폭행 범죄에 대비해서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청소년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정비되고 엄정히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강간죄에 대한 법정형량이 외국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미국 미시간주는 4등급, 캐나다는 3등급으로 법정형을 나누고 최고 종신형까지 받도록 하고 있음을

불 때 국내의 경우도 강간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정책 연구원의 심영희는 성폭행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현행 법규정의 개정, 성폭력 범죄 처리 과정인 형사사법체계의 개선,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의 강구, 성폭력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저항, 남녀 평등의 성문화 정착, 고정관념적 성역할 태도의 극복, 폭력문화를 비판하는 범 사회적 노력, 향락 산업의 규제 등을 강조하고 있다¹⁵⁾.

(5) 청소년 성폭행의 지도방안

한국의 강간 범죄 발생율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라 있으며, 특히 청소년 성폭행은 증가일로에 있고, 또한 질적으로도 용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청소년 성폭행의 지도방안은 무엇보다도 범람하는 음란매체에 대한 대처와 그릇된 성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첫째, 성충동을 부추기는 저질 향락매체에 대한 비판적 선별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미디어교육, 학교에서의 독서 지도 및 문학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대중매체의 선정성, 폭력성을 추방하기 위한 청소년 모니터 클럽을 조직·활용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이 시급하며, 그 내용은 성에 대한 윤리를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바꾸고,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으며, 강제적인 성과 상표화된 성은 진정한 성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체생리학이나 피임, 성병, 성윤리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담당하더라도 성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성지식을 습득하는 경로는 대부분 대중매체나 음란물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불건전한 성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또한 호기심 충족을 위한 범죄의 가능성이 깊이 내재되어 있어 부모를 통한 바람직한 성교육으로 이를 통제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토록 해야 한

다.

② 자녀와 함께 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자녀간에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적인 대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자녀들이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쉽게 털어 놓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③ 자녀에 대한 부모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자녀의 사춘기 발달적 특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요구된다. 즉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생리적으로 당연히 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성폭력은 여성들에게 당면하는 고민거리의 하나로 성폭력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여성 개개인이 성폭력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모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1) 본래 성폭행이란 단어는 성기노출, 성적 희롱, 각종 추행, 강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용어이나 최근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성폭력 또는 성폭행은 사실상 강간을 뜻하며, 「부녀자 폭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80년대 들어 강간사건이 급증하자 「범죄에 대한 보도가 범죄심리를 불러일으킨다」는 범죄심리학적 고려때문에 매스컴의 강간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강간이라는 자극적 용어 대신에 성폭행·성폭력 또는 부녀자 폭행으로 씌여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도 성폭행은 강간 또는 그에 준하는 심한 성적 추행에 한정된 의미로 쓰기로 한다.
- 2) 법무부 연수원(1989), 범죄백서.
- 3) 체육부(1990), 청소년 백서.
- 4) 심영희외(1989),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연구원, p.161.
- 5) 전라북도 가정복지국 청소년과(1990), 청소년의 성문제와 대책, p.24.
- 6) 한국일보, 1989년 8월 10일.
- 7) 홍강의(1989), 10대의 성폭력, 동아일보, 제20861호.
- 8) 국민일보, 1990년 9월 20일.
- 9) 중앙일보, 1989년 8월 10일.
- 10) Burgess & Holstrom(1974), Rape Trauma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p.982.
- 11) 세계일보, 1990년 7월 12일.
- 12) 동아일보, 1990년 12월 7일.
- 13) 청소년 선도신문, 1990년 12월 15일.
- 14) 동아일보, 1989년 7월 19일.
- 15) 심영희외, 전제서, p.240.

7. 자 살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감정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며 이로 인해 자주 우울증이나 무력감, 자아혼란감 등에 빠지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소화해낼 신축적인 능력이 없어 과격하게 표현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살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70%이상의 청소년들이 성적비관, 가정불화 등의 문제로 자살충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1) 청소년 자살의 사례

학교성적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자살한 어느 여고생을 소재로 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가 89년 여름 많은 관객을 동원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킬 만큼 청소년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남긴 유서¹⁾는 자살을 택하게 된 청소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자살전의 유서 내용

“...날이 밝으면 학교가기가 불안하다. 일류대학을 꼭 가야만 하나?...”

“...막상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마음이 가볍습니다..명문대학이 왜 그렇게 내 가슴을 짓눌렀는지..”

“난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고 음악과 시를 사랑하지만, 1등만 강요하는 어머니 밑에서 매일 시들어 간다.. 공부만 요구받는 이 삶에 환멸을 느낀다..”

“난 1등 같은 것은 싫은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은 싫어... 세상은 경쟁! 경쟁! 공부! 공부! 아니 대학! 대학!... 공부만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책이 무섭다. 학교에 가기가 싫다”

“공부도 하지 않으며 공부했다고 속여 죄송하다”

“시험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대학에는 꼭 가야만 하나요”

“책임감이 없어 죄송합니다”

“대학에 가야만 인간대접을 받는 이 오염된 세상이 싫다”

이와 같은 유서는 청소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또한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2) 청소년 자살의 실태

자살은 인간의 10대 死因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매일 천명 이상이 자살로 세상을 등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기획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81년 당시 자살율이 인구 10만명당 20.6명으로 10대 사인중 제9위를 기록한 일이 있고, 최근들어 10만명당 22명으로 세계6위의 자살국으로 꼽히며 연령별 자살분포를 보면 14-24세가 전체 자살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발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

문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4년 한해동안 74명이었던 중·고생의 자살자수는 85년 1백명으로 넘어선 이래 해마다 늘어 지난 88년에는 126명이 성적불량, 염세, 부모의 질책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8년 3월부터 89년 2월말까지 1년동안 전국에서 중·고교생이 126명이 자살, 3일에 한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0명, 충남 14명, 경기 13명, 강원 10명, 충북·제주 각 9명, 경북 8명, 전북 6명, 전남·대전·경남 각 4명, 대구 3명, 인천·광주 각 2명 등이다. 자살 원인별로는 가정불화

[표 10]

국회에 보고된 자살학생 현황³⁾

년 도	83	84	85	86	87	88
인원수 단위(명)	115	74	113	117	100	126

39명, 부모의 심한 질책 20명, 신체결함이나 신병 15명, 빈곤 12명, 열세비관 12명, 결혼가정 9명, 성적 불량 7명 등이다⁴⁾.

또한 90년 문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는 1월부터 11월말까지 104명의 초·중·고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고교생이 67명, 중학생이 30명이었고 국교생이 7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다. 자살 이유는 열세비관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부모의 꾸지람이 15명, 가정불화 13명, 부모의 과잉기대와 결혼가정이 각각 8명, 성적비관이 5명 등으로 나타났다⁵⁾. 특히 열세비관, 부모의 질책에 의한 자살의 경우에도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청소년의 자살이 많은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30년 사이에 10대들의 자살율이 3배나 늘어났고, 매년 3만명의 10대 자살자가 나오는 일본의 경우에도 그 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나 일에 쫓기는 부모로부터의 소외감 등 가정문제가 아니면 이성관계, 신병비관, 친구와의 관계 등 개인적인 동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은 학업성적과 입시위주에 대한 강박관념이 주요 동기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의 기대수준이 성취욕구에 미치지 못하는데 따른 수치심이나 우울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YMCA 청소년 상담실이 1990년 7월 10일부터 한달동안 서울시내 고등학생 1,015명과 중학생 6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살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여학생 81.9%, 남학생 62.6%나 되

었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빈도는 ‘거의 드물게’(31.5%), ‘자주’(8.7%), ‘항상’(1.6%)으로 나타났다. 성적비관 자살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는 응답이 63.9%에 이르러 학생들도 성적을 자살의 주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진학(32.8%), 성적(27.3%), 진로문제(26.3%)인 것으로 나타났고, 절망적인 느낌으로 ‘현재 자살하고 싶다’는 응답이 9%에 이르렀다. 또한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나 어른들의 잘못’(29.1%), ‘본인의 자각부족’(27.0%), ‘학교교육의 문제’(22.4%), ‘부모의 잘못’(12.2%)등을 지적하고 있다⁶⁾.

한편, 김형모의 청소년 상담내용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0명 중 11.9%가 자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 원인으로는 공부문제(30.2%), 가정문제(21.8%), 이성문제(21.0%), 자기신상문제(13.9%), 친구문제(9.2%) 등을 지적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생활, 성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살충동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수 있다⁷⁾.

최근에는 학교주변 폭력배에 시달려온 국민학교 6학년 남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고 이에 충격을 받은 국민학교 5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⁸⁾이 일어나, 국교생으로까지 자살연령이 낮아지고 있음과 학교주변 폭력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3) 청소년 자살의 원인

최근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청소년 자살의 문제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원인이 너무 복잡적이고 구조적이다. 즉, 청소년의 자살은 단순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회학적, 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나는 것인 만큼 어릴때부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성격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자살 행동은 일반적으로 가정불화, 신병비관, 경제빈곤, 남녀관계, 학교문제 등에서 비롯된다고⁹⁾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라 청소년들의 자살원인은 훨씬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은 우리 사회의 과도된 가치관이 빚은 사회병리현상의 한 측면으로 학부모들의 일류지향성 가치관, 지식습득 위주의 입시 교육제도, 비인간화 교육 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의존과 독립의 갈등, 성문제, 주체성 문제 등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에 있으며,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 부터 진학에 대한 무리한 기대와 동료에게 지지않으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특히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자주 느끼고 살아가는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복될 경우 청소년들은 ‘나는 인생의 패배자’란 생각을 굳혀 결국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력감속에서 목숨을 끊게 된다. 즉, 청소년들의 자살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학업성적으로 인한 부모에 대한 죄책감과 자기 불신감에 따른 일종의 도피행위로 이루어지며, 부모의 관심이 지나친 간섭으로 표면화될 경우 일부 청소년들은 공격성을 외부로 부터 자신에게 돌려 자살을 기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은 여러 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서울, 충북, 전북의 중·고생 9,700명을 조사한 「학교 보건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중·고생의 90% 이상이 학교성적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명 중 6명 정도가 자살충동을 느낀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91.5%가 성적비관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¹⁰⁾.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살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 이상적인 자아와의 괴리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즉, 자아정체감(ego identity) 형성 여부에 따라 청소년을 자아확립형, 자아혼란형, 자아탐색형, 자아갈등형 등 4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자아갈등형의 자살위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아갈등형은 성장과정에서 일찍 재능을 보이다가 자라면서 평범해진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이들은 부모나 주변의 기대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자기모습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자살을 하게 된다.

특히 학업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자녀의 현실적인 능력수준의 격차로 발생하는 부모 자녀간의 갈등, 반복되는 욕구좌절과 열등의식 등이 청소년의 자살을 더욱 부추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살에 이르는 데는 매스컴도 큰 요인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기사가 대서 특필되면 전염효과를 가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를 보고 동류의식을 느껴 연이어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슷한 처지가 아니더라도 충동적인 자살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의 가정배경은 분열되고 해체위기에 있는 가족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 부모의 사망·유기, 가족성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범죄의 경험이 있거나 알콜중독자인 부모, 잦은 이사, 부모의 불화 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안식처로서의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지나친 통제에 의해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친척이나 선생님 그리고 이성친구에게서 친근한 관계를 찾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 대한 강한 욕구가 사소한 이유에서라도 좌절이 되면 그들은 인내력을 상실하게 되어 쉽게 자살을 기도하게 된다.

(4)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청소년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청소년 자신이 인생을 장기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하며 학부모 등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는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청소년들의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입시 위주의 현행 학교교육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적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특기 교육을 개발, 장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의 교육제도가 단시일내에 크게 개선될 전망이 없는 현실하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능력 이상의 지나친 기대를 자제하고 세상을

밝고 올바르게 살아 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한 학교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 자살은 입시위주의 잘못된 교육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② 일선 학교의 지나친 시험횟수의 축소와 성적위주 평가의 지양 ③ 보충수업 등 변칙수업의 폐지 ④ 실업계 학교에 대한 국가적 지원 ⑤ 학생개인의 창의력과 소질을 개발하는 전인교육의 실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류대학만이 일류인생을 보장한다는 잘못된 사회통념과 구조적 모순을 선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의 자살은 문제해결의 능력이 부족하여 인생에 대해 자포자기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모들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독립심과 자아 통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징후를 보이기¹¹⁾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살증세는 ①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할 때 ② 갑자기 먹는 버릇이나 잠자는 버릇이 바뀌었을 때 ③ 학교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고 이상한 행동을 자주할 때 ④ 마약과 술을 사용할 때 ⑤ 취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갑자기 유머감을 잃을 때 ⑥ 친구와 가족을 피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할 때 ⑦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이 일어날 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¹²⁾.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자극하는 말을 삼가하며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열거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5) 청소년 자살에 대한 지도방안

- 1)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토록 노력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죽음을 쉽게 생각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의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불어 넣어 준다.

2)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과 독립심을 기르도록 한다.

최근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나 과보호로 인해 청소년들의 의지가 약해지고, 성격이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성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의 건전한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주어 자립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3) 원만한 가정분위기를 조성한다.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을 솔직하게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모두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

4) 제3자를 통한 해결방법을 활용한다.

청소년 자신이 비행이나 성문제 등에 관해 고민하는 경우 부모가 직접 이를 추궁하기 보다는 상담기관 등을 찾아 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며,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특히 불안감, 죄책감, 신경증세 등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자살기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미수에 그친 자살기도는 자신에 대한 태도의 변화나 부모 및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욕구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기울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살은 비행 청소년이나 저지르는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평범한 청소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내려지는 계획적인 행동이며, 자살기도 청소년은 사전에 주변 사람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평소

에 자녀들의 태도에 깊은 주의를 가져야 한다¹³⁾.

- 1) 김용숙(1990), 점수병 학교·학력병 사회, 서울:성원사, pp.6-32.
- 2) 동양경제신문, 1989년 3월 8일.
- 3) 박종혁(1988), 자살학우 실태보고, 푸른나무, 제2호, p.183.
- 4) 조선일보, 1989년 9월 19일.
- 5) 청소년 선도신문, 1990년 12월 1일.
- 6) 국민교육신문, 1990년 10월 22일.
- 7) 동아일보, 1990년 5월 18일.
- 8) 서울신문, 1990년 11월 27일.
- 9) 안재정(1984), 비행청소년의 의식, 서울:복지문화사, pp.288-290.
- 10) 남정자의(1990), 학교 보전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전사회연구원.
- 11) 안재정, 전제서, p.128.
- 12) 차종환(1990),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바울서신사, pp.85-86.
- 13) 동아일보, 1989년 6월 3일.

8. 음란물 구독 및 시청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음란잡지나 비디오에 접할 기회가 매우 많아져 청소년 문화가 음란물 실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비디오의 보급이 4백만 대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월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새 비디오 테이프가 200여편 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심지어 250편을 기록했는데 이 중 수입된 외국 영화가 170편, 국내 영화가 20편, 나머지가 교육 관련 교재 내용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디오 테이프 시장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영화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되고 있고, 많은 내용이 청소년의 정신문화와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음란 잡지의 폐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음란 잡지나 비디오가 갖고 있는 더 큰 문제는, 그 부작용의 영향이 개인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1) 청소년의 음란비디오 상영 사례

다음의 내용은 청소년이 비디오를 보고 이로 인해 저지른 폭행의 사례이다.

음란비디오로 인한 폭행사례 I

“잘못했습니다’ 31차례 강도 행각을 벌이면서 15차례 부녀자를 마구잡이로 성폭행한 문모군이 뒤늦게 후회하며 말했다.

문군은 지난 6월 초 고향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한동안 신문 배달원으로 취직, 착실한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서울에서 공부를 해 대학시험을 치르려던 생각은 잠시 뿐이었

다. 자기 또래의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어느새 음란 비디오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장면들에 빠져 들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금기야는 흥기를 들고 남의 집 담을 넘게 되었다.

눈앞에 떠오르는 포르노 장면들을 연상하며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하던 박모양(27)을 처음 폭행한 문군은 그 후 14차례나 같은 방법으로 「입막음」용 성폭행을 일삼았다.

수치심을 자극해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시작한 성폭행이 거듭되면서 문군은 점차 흥포해졌다.

지난 3일에는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김모양(25)을 마구 때리고 흥기로 양 손바닥을 찌른 뒤 잔인하게 성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10월 한달에만 15회 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문군은 동일 수범의 범인을 추적해 온 경찰에 결국 검거됐다. 무려 조서 5백장 분량의 범죄 사실을 털어 놓은 문군은 몹시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혼잣말처럼 되풀이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여느 10대들 처럼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솟아오른 문군은 그토록 악랄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진해 보였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 비디오와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빚어낸 청소년 범죄의 전형이지요. 이 소년의 경우야말로 사회의 유해 환경이 빚어낸 대표적 비극입니다” 담당 형사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서가 끝난 뒤 보호실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은 문군의 모습은 비뚤어진 사회가 만들어낸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국민일보, '90.10.19)

음란비디오로 인한 폭행사례 II

“지난 11월 서울 시내 모 고등학교 1학년 여자반에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는 글을 써보게 했던 교사는 그 중 세 여학생의 글을 읽고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성경험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특히 그 중 한 명은 지난 추석 때 혼자 집을 보기가 심심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근처의 오빠(고2)더러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남학생이 비디오테이프를 가져와 같이 보게 되었는데 그 테이프가 바로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였다. 이것을 보면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한 남학생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처음 보는 테이프에 놀라 어쩔줄 모르던 여학생은 얼떨결에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나머지 두 여학생의 경우도 비슷했다. 솔직하게 털어 놓은 여학생만도 한 학급에 3명이나 되었다면 실제로는 얼마나 된다고 보아야 하나?”

(2) 청소년의 음란물 구독 및 시청 실태

음란도서 및 비디오의 갑작스런 확산 현상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틈도 없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환경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음란물의 양적 증가는 물론 그에 따른 내용적 다양성은 급격한 변화 추세와 함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충격으로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음란도서나 비디오 문화의 출발이 없었음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안고 있었던 제반 사회문화적 구조와의 연계하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의 인식이나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총론 차원의 수준에서 문제의 내용이나 수용 대상 등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접근하는 각론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¹⁾

서울 YMCA 청소년 상담 센터가 '88년 10월 서울·과천 지역의 중고생 9백 87명(남 : 346명, 여 : 641명)을 대상으로 불량 출판물 접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4.5%가 음란 도서 및 만화, 도색 잡지 등 불량 출판물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출판물로는 선정적 광고(35.5%), 음란도서(23%), 도색 잡지(20%), 음란만화(20%) 등이었다. 이 중 남자가 여자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불량출판물 접촉 빈도가 더 높았는데, 조사 대상 중 여학생이 더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청소년의 불량출판물 접촉 정도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출판물을 처음 접한 시기는 사춘기인 중학교 때가 68%로 가장 많았으나 국민학교의 경우도 적지 않아(12%), 부모들의 각별한 주

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불량출판물을 보는 횟수는 한달에 한번(26%), 한달에 두번(19%), 일주일에 한번(10%) 순이었고, 보는 장소로는 학교(32%)를 비롯, 집(25%), 만화가게(15%), 친구집(14%)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집의 경우 불량출판물을 보는 위험부담이 다른 장소보다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집의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주목할만하다.

이들 불량출판물의 구입 가격은 1천원-3천원이 전체의 51%, 5백원-1천원이 23%, 5백원 이하가 15%로 다른 도서보다 가격이 싼편이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출판물을 보게 되는 동기로는 호기심이 46%로 으뜸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어서라는 응답도 36%나 되어 주위 사람의 무관심이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음란출판물을 보고 난 후의 느낌에 대해 응답자의 44%가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고 했으나, '혐오감이 들었다'가 21%, '죄책감과 후회가 생겼다'가 19.9%, '기분이 좋았다'가 11.8%였다. 특히 남학생들 중 25%가 '기분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량출판물을 보고 난 느낌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19%가 '자위행위를 했다'고 응답했으며, '본 내용을 모방했다', '직접 행위를 하거나 음주·흡연·본드 흡입을 했다'는 경우도 각각 2%나 되어 이들 불량출판물이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자 중 76%가 불량출판물이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내용이 불건전하다', '자신의 도덕의식과 일상생활에 혼란을 가져온다', '성범죄나 폭행과 연관성이 높다'는 내용 등을 들었다.

음란비디오의 경우도 비슷하다. 서울 시내 3개 국민학교 5·6학년 학생 818명을 대상으로 YMCA 청소년 성교육 상담센터가 실시한 「청소년 비디오 시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학생 중 34%가 비디오를 통해, 30%가 외설잡지를 통해 각각 성행위를 목격했다고 밝혀 결국 34% 이상의 국민학생이 음란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한편,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이 '88년 3월 서울시내 남녀 중고

생 694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포르노 비디오 접촉에 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성인용 음란 비디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모두 273명으로 전체의 39.9%, 또 비디오를 본 장소로는 단화가게(9.9%)나 다방(2.2%) 등 으스스한 장소보다 가정(26.7%)과 친구집(42.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청소년들이 음란비디오를 처음 본 것은 중학교 때가 55%로 가장 많지만 국민학교 때의 경우도 20.5%나 된다. 또 지금까지 1-3편 보았다는 경우가 전체의 60.8%였으나 나머지 경우 적게는 4-5편, 많게는 수시로 본다(6.2%)는 대답이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비디오를 자주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이 주로 친구들과 음란비디오를 보거나 본 느낌을 자주 이야기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청소년들 중 44.3%가 친구가 보자고 해서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62.3%는 친구와 함께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청 후 그 내용에 관해 대화를 나눈 대상도 62.6%가 친구였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음란비디오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음란비디오를 보고 난 후의 느낌은 ‘불쾌했다’(20.1%), ‘흥미롭지 못했다’(20.9%)는 반응도 있으나, ‘재미있다’가 43.6%,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 보고 싶었다’가 13.2%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청 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46.5%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16.9%), ‘머리속에 장면이 떠올라 정신집중이 안된다’(9.9%), ‘화면처럼 행동하고 싶어졌다’(8.8%)고 응답한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실제로 비디오를 모방해 성경험을 했다’는 사례도 8.8%나 되었다. 이처럼 음란비디오를 본 후 후유증이 자신의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비디오 보유 실태를 보면 전체의 32%인 222명이 집에 비디오 기기를 갖고 있었으며 용도는 주로 영화감상(48.4%)이었고, 학습용으로 사용한다는 대답은 6.1%에 불과하였다. 또한 테이프 구입 경로에

대한 응답은 부모가 13.1%, 청소년 자신이 10.1%, 일정치 않다가 18.7%로 나타났다.

또한 1989년 서울 YMCA가 실시한 「청소년 비디오 시청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비디오의 종류는 액션물(47.1%), 공상·과학(13%), 공포·괴기(10.3%), 애정물(7.1%), 코메디(4.2%), 무협(3.1%), 뮤직비디오(2.2%), 만화(1.7%), 교육·문화(1.5%), 기타(9.8%)의 순으로 나타나 오락에 치우친 선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비디오 시청의 동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재미있어서'(54.2%), '기분전환을 위해'(26.3%), '시간을 보내기 위해'(4.2%) 등으로 대답하고 있어 주로 청소년들은 흥미 위주로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3) 청소년의 음란물 구독 및 시청 원인

청소년의 음란출판물 구독이나 비디오 시청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상행위로 인한 음란물의 과잉공급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잉공급은 '87년 말 정부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크게 완화되면서 부터 더욱 심해졌으며, '88년 중순 이후 외설·저질 대중 잡지는 현재 40여 종(주간 10종, 월간 30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결같이 책 내용과 관계없는 국내 및 외국 여성의 선정적인 컬러 사진과 함께 기사를 실고 있는 이들 잡지는 청·장년층으로부터 눈요기, 흥미거리의 오락물로 인기를 끌게 되자 더욱 외설적인 내용을 다루어 잡지사마다 150~200페이지 규모로 매주 또는 매월 2만-3만부 쯤 찍어내고 있다.

이러한 대중잡지는 대형 서점에서부터 주택가 소형서점, 인파가 몰리는 고속버스 터미널, 신문 가판대에까지 버젓이 나돌고 있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학교 앞 서점도 예외는 아니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89년 2월호로 5호째를 낸 A지의 경우 172페이지 가운데 20여 페이지에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외국여성의 전라에 가까운 컬러 사진을 실

고 있으며, 기사 내용도 ‘남자없이 하룻밤도 잠들지 못했다’, ‘에트 특급’ 등의 제목을 달아 놓는 등 음란 위주의 내용들로 구성되 있다. 또한 B지 2월호도 앞뒤 표지와 앞쪽 중간부분 등 곳곳에 음란·저속 사진과 ‘교도소의 성생활’ 등 퇴폐적인 내용을 싣고 있다. ’89년 1월에 창간된 C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잡지 모두 70~80%를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 성행위 묘사 사진, 저속·퇴폐 기사의 할애 등 포르노 잡지화하고 있다. 이들 잡지를 만들어 내는 회사와 유통업자들의 저속한 상업주의는 청소년들이 싼 값에 그리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다는 데서 증폭된다고 볼 수 있다.

(4) 청소년의 음란물 구독 및 시청에 대한 대책과 지도방안

과거에는 음성적으로만 판매되어 오던 음란 및 불량도서는 이제 서점이나 가판대에서 공공연히 팔리고 있으며, 은행과 같은 공공 장소에도 비치되어 있어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음란도서 및 만화 등의 범람이 방관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여성 및 사회단체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음란출판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한 어머니 중앙 연합회가 개설한 청소년 독서 상담실, 서울 YMCA의 유해출판물 고발 센터, 서울 YWCA의 만화 모니터 모임 등이 그것이다.

우리 사회의 음란출판물 범람 실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이다. 한국도서잡지 윤리위원회의 정기간행물 제재 결정 현황을 보면 ’86년 430건이었던 것이 ’89년 591건으로 늘어났다. ’89년의 경우 제재 결정 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사진이 31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만화 156건, 기사 64건 순이다. 도서잡지 윤리위원회의 구현서 심의부장은 “음란물의 출판을 제도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독서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한 어머니회에서는 청소년 독서 상담실을 통해 양서 추천, 도서선별법, 독서방법 지도 등 독서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벌

이고 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곳 상담실에 들러 자녀들의 독서 실태에 관한 갖가지 고민을 털어 놓기도 한다. “자녀가 음란도서나 성인만화를 즐겨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딸이 시시한 연애소설만 읽고 공부는 안해 걱정이다”, “우리 애는 책은 보기 싫어하면서 무협지는 밤을 세워 본다”는 등의 호소를 하는 것이다. 상담실 자원봉사부 임명자 부장은 “청소년 독서 지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라고 전제, 음란 서적을 보는 자녀를 욕박지르거나 무안을 주기보다는 그것이 왜 나쁜지에 대해 알아들도록 대화를 나누고 취미 분야를 개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산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청소년 독서 상담실은 앞으로 학교 어머니 교실을 이용, 음란 도서의 유흥성에 관해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청소년 독서클럽을 조직 건전한 청소년 독서 풍토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89년 10월 유해출판물 고발 센터를 개설한 YMCA에서는 유해출판물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내용분석을 하여 고발이 들어 온 출판물은 해당사에 연락, 표현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YWCA는 어머니와 현직 교사로 구성된 만화 모니터 모임을 활용하고 있다. 매달 만화 잡지 분석을 통해 좋은 만화와 나쁜 만화를 선정, 해당 출판사에 만화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만화 잡지 편집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만화 잡지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라는 만화상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1990년 11월 9월 17개 사회단체가 스포츠 신문 음란 폭력 조장에 공동으로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각종 보도매체의 건전한 책임의식을 촉구한 것도 대책 차원에서 뜻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들을 불량 출판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교육 강화, 불량출판물 제작회사에 대한 법적인 규제 강화, 불량 출판물 추방운동의 전국적 확산, 건전한 내용의 독서 권장운동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향락 산업의 퇴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비디오의 경우는 비디오의 보급과 시청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청소년 비디오 시청의 제한과 억제와 관련된 소극적인 차원에서 탈피하여 비디오 선택의 동기 및 내용 선택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비디오 시청의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나 동기가 오락 및 흥미 위주라는 점에서 테이프 제작은 가급적 청소년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건전 오락물 제공에 초점을 맞춘 비디오 내용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청소년 비디오 시청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비디오 시청 상태에 대한 기초조사나 비디오 시청이 청소년의 성문제 및 폭력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비디오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무허복재·음란 퇴폐 비디오의 지속적인 단속, 비디오업자들의 의식 고양 및 정기적인 교육실시, 불법·불량 비디오 추방 운동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1) YMCA(1989), 청소년 비디오 시청실태 조사보고서,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 2) 동아일보, 1988년 10월 24일.
- 3) 동아일보, 1986년 12월 23일.
- 4) YMCA(1988), 청소년 포르노 비디오 접촉에 관한 의식 조사,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 5) YMCA(1989), 전제서, pp.16~17.

9.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유해업소로는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롤러 스케이트장, 디스코장, 카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의 이용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소를 통해 청소년들이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여러가지의 문제행동을 배우게 되거나 비행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전자오락실과 디스코장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전자오락실과 디스코장 이용을 중심으로 실태 및 대책을 밝히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사례

다음은 전자오락실에서 만난 청소년들과의 면담사례 내용이다.

전자오락실 이용 청소년과의 면담 사례

“오락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어요.”

“우리 반 아이들 가운데 오락실에 가지 않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빠도 전자오락을 좋아하면서 나는 못하게 해요.”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는줄 아세요? 스트레스 해소엔 전자오락이 최고예요.”

또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처럼 전자오락을 재미있어 하는 것과 달리 각종 상담기관에는 자녀의 전자오락실 출입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상담전화의 수가 많이 걸려 온다.

“전자오락실에 다녀도 팬찮을까요?”

“오락실만 가면 밤늦도록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야단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도 오락실에 다녀서 용돈을 앗주었더니 집에 있는 돈을 가꿈

훔쳐가는 버릇이 생겼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죠. 알고 보니 거짓말하고 오락실에 다닌거예요.”

다음의 내용은 한 여고생이 디스코장을 자주 다니다가 그로 인해 빚어진 개인적인 피해 사례를 소개한 내용이다.

디스코장 이용 사례

“오양과 오양의 친구 4명은 5인조 디스코 계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이 계를 조직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의 반학생들이 계를 조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데 있었다. 계주는 오양이었으며, 이들은 매주 천원씩을 내고 네째주 토요일 밤에 디스코클럽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계의 목적대로 두달 동안은 순조롭게 계모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얼마 후부터 그들은 약속한 날짜가 아니더라도 돈이 마련되면 디스코장을 찾아야만 했다. 그런데 오양이 디스코장에서 만난 남학생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계는 금이가기 시작했다. 세째달에는 계돈을 오양이 모두 써버려 5명의 여학생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다.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오양이 두 달이 지나도록 돈갚을 내색을 보이지 않자 계원이었던 친구는 분한 김에 담임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서를 하였다.

“선생님, 보다못해 이 글을 올립니다. 상회 개인보다도 저희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서입니다. 상회는 요즈음 남자 친구들이 더 많아졌고 저희 학생들 간에는 상회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회를 주의깊게 살펴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상회는 틀림없이 임신했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를 위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학교에 알려지기 전에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은 평소 성적도 상위권이고 안전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담임교사는 한편으로 충격을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로 친구들의 모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양의 모친을 불러 상의했으나 모친은 펄쩍 뛰며 자신의 딸이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며칠후, 담

임교사가 오양을 조용히 불러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솔직히 고백하라고 말하자, 오양은 울먹이며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담임교사는 부모와 상의하여 비밀리에 낙태수술을 받도록 하고, 투서한 학생을 찾아내어 오양이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고 알려주었다.¹¹⁾

(2)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실태

1989년 현재 서울시내에 허가된 청소년 오락실은 3,500여개소가 되며, 주로 학원가나 학교주변에 밀집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주택가 등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자오락의 게임 내용은 전쟁이나 무술 영화를 모방한 폭력물을 비롯해 스포츠나 퀴즈 등의 건전게임과 사행성이나 선전성을 다룬 게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오락실의 환경은 좁은 공간, 캄캄한 실내, 수십 대의 전자오락기가 내뿜는 번쩍거리는 화면, 단추를 누를 때마다 쏟아지는 자극적인 전자음, 그 속에서 책가방을 둘러멘 채 오락에 열중하는 청소년, 멀거니 서서 구경에 여념이 없는 아이... 등 오락실의 풍경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이다.

80년대 이후 전자오락 게임은 전자오락실의 증가와 컴퓨터의 보급으로 소위 전자오락 중독의 지경에까지 이른 실정이다. 전자오락이 선을 보인 당시만 해도 주된 이용자가 초중고 학생들이었던 것이 이제는 미취학 아동들과 대학생·직장인 등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최근 들어서는 각종 비디오 게임이 3-5개월 정도의 짧은 주기로 번져나가고 있으며, 기업체에는 근무시간 중 전자오락 게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감봉 조치한다는 경고문이 붙어있을 정도이다.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제력이 있어 전자오락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나, 달리 여가를 활용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쳐 구속을 자주 받으며 중압감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전자오락이 스트레스 해소에 그치지 않고 탈선과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전국의 허가받은 청소년 대상 전자오락실은 1만 5천 16개소로

'87년 1만 4백 85개소에 비해 5천여개소나 증가됐다. 한국 유가장 협회에 등록된 게임의 종류만 해도 테트리스, 루레트, 사냥꾼 게임 등 700종에 이른다.

한편 지난 '89년 한해동안 국내에 보급된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는 25만대 정도로 추산되며 올해는 60만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어 90년말까지 90만대에 달하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가 보급될 전망이다. 가정용 게임기는 초중고 학생들의 새로운 놀이 기구이자 교재 수단으로 등장 대도시 일부 학교에서는 게임기없이는 아예 친구로서의 공감대 형성조차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있다. 또한 휴대용 게임기도 선보여 전자오락의 보급 추세는 더욱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비디오 게임의 내용이 대부분 폭력적인 면에 치중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당수의 전자오락실이 '고스톱', '에잇라인' 등의 도박성 기기를 보유한 채 변태 영업을 함으로써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디오 게임의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일본, 미국 등지에서 5,6년전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뿐더러 상당수의 소프트웨어가 도색적이고 퇴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새로운 음란물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포카 게임은 화면상의 여자가 옷을 하나씩 벗는 것이며, 성인용 테트리스는 아예 포르노 비디오 장면이 등장한다.

한편, 1989년 12월 서울 YMCA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등학생과 재수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오락실 이용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95.0%의 학생들이 전자오락실을 한번 이상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자오락실을 처음 이용해 본 시기는 국민학교 때가 55.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때 25.4%, 고등학교 때 10.4%, 재수할 때 2.2%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자오락을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자오락실을 이용하는 횟수는 '1주에 1번 이상'이 40.5%, '1달에 1-2번'이 13.9%, '거의 안간다'가 25.1%, '최근에 한번도 안갔다'가 18.3%로 나타나 비교적 많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전자오락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오락실을 이용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27.3%)’, ‘별다른 이유없이 간다(23.5%)’, ‘친구들이 권해서(15.6%)’, ‘호기심때문에(9.7%)’, ‘주변에 있기때문에(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응용통계 연구소가 10세 이상의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디스코장을 가는 이유로는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31%)’, ‘기분 전환을 위해(30%)’, ‘생일이나 그 밖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15%)’, ‘그냥 즐기기 위해(11%)’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³⁾

한편, 청소년들이 디스코장에 가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전전한 여흥이므로 바람직하다(35%)’,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32%)’, ‘별다른 놀이문화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20.2%)’, ‘향락풍조를 조장하므로 없어져야 한다(12%)’등의 응답결과가 보고되었다.

한달간 전자오락에 소요되는 비용은 500원 이하가 4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500~1,000원 15.7%, 1,000원~3,000원이 11.6%, 3,000원~5,000원이 6.8%, 그리고 5,000원 이상이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오락 이용법을 아는 게임의 종류는 2~3가지가 30.5%로 가장 많았지만, 10가지 이상 이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27.3%에 달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4~6가지 15.7%, 1가지 10.1%, 7~10가지가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오락에 드는 비용은 주로 용돈을 절약해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6.6%), ‘부모님께 달라고 한다’(11.6%), ‘친구가 내준다’(7.7%), 그리고 기타(16.5%)의 응답도 나타났다. 특히 기타의 방법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청소년이 16.5%라는 사실은 전자오락을 하기위해 집에서 돈을 훔친 청소년이 7.9%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전자오락을 하고난 후의 느낌에 대해서는 ‘잠시 동안이라도 근심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33.4%)는 응답도 있었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다’(31.8%), ‘후회가 된다’(14.8%), ‘괜히 기분이 안좋다’(6.1%) 등의 내용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자오락을 하고난 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54.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공부에 집중이 안되고 오락기가 어른 거린다’(19.2%),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어 명랑해졌다’(11.9%), ‘폭력성이 있는 게임을 하면서 공격적인 성격이 된다’(5.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자오락실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쁜 영향으로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흡연(33.0%)과 폭력적·선정적인 전자오락 내용(30.0%)을 들었고, 패싸움 등의 폭력행위(6.6%), 본드나 부탄가스의 흡입 등 약물제공(1.7%)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62.8%)은 친구와 함께 전자오락실에 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혼자 간다는 청소년은 15.7%, 가족과 같이 가는 경우가 8.1%로 나타났고, 의외로 학교 또는 동네 선배와 같이 가는 경우는 0.9%에 그쳤다.

한편, 서울 YWCA가 1990년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6개도시 남녀 중고등학생 1,0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용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8.6%가 카페에 가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0.5%의 청소년들이 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술집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는 학년이 높을수록 늘어나 한 달에 한두 번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2.9%였으나 3학년의 경우 10.6%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 디스코장을 가 본 학생은 남학생의 14.4%, 여학생의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구장에 가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학생의 23.5%, 여학생의 3.2% 였다.⁴⁾

또한, 서울 청소년 지도 육성회의「청소년 주변 유해환경과 비행 선도 방안」을 주제로한 세미나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유해 업소 출입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즉 율락가 출입의 경우 일반 청소년이 8%, 비행청소년이 32%, 디스코장 출입은 일반 청소년이 22%, 비행청소년이 66%, 술집은 일반 청소년이 36%, 비행청소년이 85%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디스코장이나 나이트클럽 등을 비롯한 각종 술집에 출입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술집은 10평 남짓한 무허가 디스코장에서부터 관광호텔 나이트 클럽이나 50평의 실내를 장식하는데 7천만원을 들인 호화카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지방의 일부 청소년들은 토요일마다 서울로 ‘원정’을 오기도 하고, ‘서울팀’이 지방으로 ‘원정’을 가기도 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디스코 클럽은 정식허가를 받은 업소만도 200여개가 넘고 그 밖에도 100여개의 무허가 디스코 클럽이 있다.⁵⁾ 입장료가 싼 곳은 1인당 1,000-2,000원이며, 여자 손님 입장료를 남자 손님보다 싸게 1천원으로 하는 업소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디스코장에서는 10대들의 청소년들이 학부모와 학교의 간섭과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리낄것없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장면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 앞 분식코너에 성인 옷과 화장품 등을 맡겨 놓고 방과후 옷을 갈아 입은 뒤 디스코장 등을 가기도 하며 디스코 클럽의 업주들은 「미성년자 입장불가」라는 팻말을 문앞에 걸어 놓고서도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10대 청소년들을 여과없이 입장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한편 시기적으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이 가장 빈번한 때는 대학과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 때에는 디스코장과 주점이 입학시험을 끝낸 중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로 붐비며, 일부 업소는 아예 고고생 수준의 학생전용업소로 소문이나서 20대 청년들도 출입을 삼가하는 실정이다.

디스코장이나 나이트클럽을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하는 행동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며, 귀를 찢는 듯한 음악소리에 맞추어 춤을 춘다.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에 관한 각종 신문기사를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은 그곳에서 함께 춤출 상대를 기다리거나, “즉석미팅”을 하기도 하고, 피성을 지르며 각종 쇼를 구경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의 행동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는 다음의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지난 1일 밤 11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D 디스코클럽, 20명 남짓한 플로어에 백여명의 손님들... 이들은 펑크머리에 유니섹스 차림을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한 쪽 구석자리를 차지한 3명의 여학생들은 ‘지금 춤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우리같은 여학생들이 디스코장에 들어와 20분 정도 지나면 남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한다.’고 태연히 말했다. 비슷한 시각 강동구 천호동 P 성인디스코클럽도 대부분 10대 청소년들로 초만원에 이르고 있었다... 블루스곡이 끝나자 곧 속이 흰히 들여다 보이는 얇은 한복을 입은 스트립 걸 1명이 무대로 올라섰다. 그리고 옷을 하나 하나 벗어던지며 속칭 ‘황진이 쇼’를 시작했다. 자리에 앉은 10대들은 쇼가 진행되는 동안 숨을 죽이며 무대를 지켜봤으며 계속해서 뺨쇼, 샤워쇼 등 음란한 퇴폐쇼가 끝날 때마다 손뼉을 치며 피성을 질러댔다...”⁶⁾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문란한 행위는 단지 유해업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자문제나 사소한 이유로 패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나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며,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친구의 임신중절 수술을 돕기위해 매혈을 하기도 한다.

(3)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원인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비정상적인 가정, 학교, 사회의 환경속에서 그들에게 열등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가정과 학교를 외면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청소년들과 동료집단을 형성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보람과 생활양식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구적인 적응양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의 인습적인 규범에 반발하는 일종의 일탈적인 행동양식을 지닌 쾌락주의적이고 도피주의적인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하위문화권속의 청소년들 중 일부는 밤늦게까지 떼를지어 거리를 방황하고 디스코장이나 전자오락실을 찾아다니면서 술과 흡연을

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폭력, 절도, 성범죄 등과 같은 범죄행위도 저지르게 되는데 오늘날 학생을 포함하는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청소년 비행이 더욱 더 집단화하고 폭력화하고 있는 현상은 바로 이와 같은 청소년의 비행적 하위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⁷⁾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충분한 공간에서의 여가를 선택할 기회를 자유스럽게 갖지 못한 채 업주들의 무분별한 영리추구와 당국의 무관심속에서 탈선의 길을 걷게 된다.

청소년의 디스코장 출입에 관한 한 준상의 참여 관찰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마땅히 놀 곳이 없어서 디스코장을 찾아 그 곳에서 그들 스스로 적당한 수준의 비행을 경험 하기도 하며 성인이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유형과 형태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인지 된다고 밝히고 있다.⁸⁾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게 되는 원인으로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의 깊은 자학과 폐배의식을 지적할 수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자학과 폐배의식은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됨으로써 그들 스스로 이룰 수도 저룰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부촉하는 상황적인 요인들로는 건전한 오락장과 휴식 공간의 빈곤, 교복 자율화와 두발 형태의 제한 철폐, 한탕주의와 냉소주의의 만연,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부도덕한 상흔 등을 들 수 있다.

(4)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예방을 위한 대책과 지도 방안

일반적으로 학교 청소년은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속에서 참다운 여가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 청소년들도 과도한 업무시간과 조악한 주변생활 환경 등으로 충분한 놀이 공간과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 채 유해업소와 같은 비행화의 장소를 찾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놀이 공간의 확보와 자발적이고 즐겁게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청소년 전자오락실 출입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전자오락실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전자오락실에 대한 단속과 규제에 대한 내용이 여러번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 당국과 오락실 운영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 및 가정도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한편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자오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전자오락을 즐기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책보다는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즐겨보며 자라나는 최근의 청소년들은 어른 세대에 비해 컴퓨터나 전자오락기에 친숙하고 관심도 많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자오락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시중에 나도는 전자오락의 게임내용은 폭력이나 외설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국 전자 유기장 협회가 전자오락 프로그램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본 협회가 전자오락실 주인들이 중심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심사 기준이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자녀가 전자오락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야단만 치는 것 보다는 게임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오락실 분위기는 괜찮은지 부모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내용이 아닌 게임을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컴퓨터가 있는 경우에도 게임을 통한 판단력 향상과 게임과정을 통해 컴퓨터와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청소년의 디스코장 이용의 경우, 행정 당국의 단속이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반면 영업주들은 조직화되고 지능적인 정보교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

이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실효성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카페, 디스코장, 룸싸롱, 만화가게 등의 퇴폐업소 업자들의 자체 정화와 사회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자유스럽게 찾아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춤을 즐길 수 있는 전전 디스코장의 확대도 조심스럽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회관 2층에 청소년 전용 디스코장이 개장된 것을 비롯 서울 구로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남부 근로 청소년회관 등 여러 곳에 청소년 전용 디스코장이 개장돼 부분적으로 청소년들이 큰 부담없이 젊음을 발산 할 수 있게 되었다.

각각의 청소년 전용 디스코장은 매주 일정한 요일과 시간에 운영되며, 입장료는 음료수 값만 받거나 무료이며, 활동 내용도 디스코 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성인들이 스스로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고 청소년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어른들의 충고나 지도에 적극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 1) 여기에 소개한 사례는 정철희(1986), 탈선지대, 서울:다나출판사, pp.214-216의 내용을 각색한 것이다.
- 2) YMCA(1989), 청소년 전자오락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 YMCA 청소년 성교육 상담 센터.
- 3) 중앙일보, 1988년 12월 5일.
- 4) 조선일보, 1990년 7월 19일.
- 5) 조선일보, 1984년 6월 7일
- 6) 동아일보, 1988년 8월 4일
- 7) 임희섭(1986),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고찰, 청소년 문제 논설집, 제16집, 서울:청소년 지도육성회.
- 8) 한준상(1989), 청소년 문제와 학교교육,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III. 요약 및 결론

Ⅲ. 요약 및 결론

1. 요 약

앞에서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중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특히 현대사회에서 자주 문제화되고 있는 행동 9개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조사대상자의 표본 특성, 조사시기, 연구방법, 질문지 내용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에서의 비교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흡 연

- 1) 청소년들은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70% 정도가 흡연 경험을 갖고 있다.
- 2) 청소년들의 흡연은 대부분 ‘호기심’이나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하며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주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흡연장소에 대해서는 70년대에는 ‘자신의 집’, ‘친구의 방’, ‘화장실’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80년대에는 특정 장소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4)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 경로는 친구들에게서 얻거나 집에 있는 담배

를 몰래 가져 오기 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구입하고 있다.

- 5) 청소년들은 대부분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구체적인 질병 발생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 음 주

- 1) 학생 청소년들의 경우 남자는 71% 정도, 여자는 20% 정도가 음주 경험을 갖고 있다.
- 2) 청소년의 음주 이유는 ‘피로움을 잊기 위해’, ‘잠을 안자기 위해’, ‘호기심 때문에’, ‘황홀감이나 신비감의 쾌락을 위해’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 3) 청소년들이 즐겨 마시는 술의 종류는 막걸리, 소주, 맥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 4) 소년원생의 24% 정도가 취중에 비행을 하였으며, 폭력범과 강력범의 경우에는 각각 38%, 37% 정도가 취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약물남용

- 1)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15% 정도, 소년원생의 경우 42% 정도가 1회 이상의 가출경험을 갖고 있다.
- 2) 청소년 약물남용의 이유는 ‘약물에 대한 호기심’, ‘열등감’, ‘소외감’, ‘사회적 압력’, ‘가족관계’, ‘스트레스’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청소년들이 주로 남용하는 약물은 각성제, 항히스타민제, 신경안정제, 환각제 등이며 비행청소년의 경우 흡입제를 남용하기도 한다.

(4) 가 출

- 1)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16% 정도, 소년원생의 경우 65% 정도가 1회 이상의 가출 경험을 갖고 있다.
- 2) 청소년 가출의 동기는 대부분 가정문제에 기인된 것으로 ‘가정불화’, ‘가족방임’, ‘훈육방식’,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3) 청소년 가출은 주로 친구와 함께 행하여지는 경향이 높으며, 가출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변화를 배회하거나 일자리 혹은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모르는 사람에게도 끌려다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 폭 력

- 1)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32% 정도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20% 정도가 폭력을 한 경험을 갖고 있다.
- 2) 청소년 폭력의 원인은 ‘열등의식’, ‘소외감’, ‘자존심의 손상’, ‘용돈 마련’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청소년의 폭력 씨클이 구성되면 집단의 유지를 위해 매년 새로운 구성원을 끌어들이며, 일단 씨클의 구성원이 되면 탈퇴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 4) 청소년의 폭력 씨클은 다양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폭력 행위는 성인 조직의 경우처럼 대담한 경향이 있다.
- 5) 청소년의 폭력 씨클 구성원 중 일부가 성인 조직으로 이동해가는 성향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 폭력씨클이 성인 범죄조직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6) 성폭행

- 1) 우리나라 강간 사건의 경우 19세 이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5% 정도이고, 고등학생의 성교경험은 남자가 25%, 여자가 10%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2) 청소년 성폭행의 원인은 불법비디오, 음란만화, 외설잡지, 퇴폐업소 등의 사회 환경적 요인과 가정의 애정 결핍, 부부간의 불화, 가족의 무관심 등의 가정 환경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 3) 청소년 성폭행의 특성은 약물남용 상태에서의 성폭행, 어린이 성폭행의 증가, 강간후 살해의 흉포화, 집단화, 무죄책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4) 성폭행의 피해 당사자는 상해, 임신 등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자살 등 극단적인 후유증을 가져오기도 한다.

(7) 자 살

- 1) 최근 1년동안 전국에서 중고등학생이 126명이 자살, 3일에 한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2)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가정불화, 신병비관, 경제빈곤, 남녀관계, 입시문제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청소년들은 고등학생의 경우 남자가 63%, 여자가 82%정도가 자살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며, 성적비관 자살에 대해 ‘그럴수 있다’는 응답이 64% 정도로 나타났다.

(8) 음란출판물 및 비디오

- 1)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25% 정도가 음란출판물을, 40% 정도가 음란비디오를 본 경험을 갖고 있다.
- 2) 청소년들이 음란도서나 음란비디오를 보게되는 동기로는 ‘호기심 때문에’, ‘주변에 있어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3) 청소년들이 음란도서나 음란비디오를 보는 장소로는 학교, 집, 만화가게, 친구의 방 등을 들 수 있다.
- 4) 청소년들은 음란비디오나 음란잡지를 대부분 친구와 함께 보고 있으며, 보고난 후의 느낌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 유해업소 출입

- 1) 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95% 정도가 1회 이상 전자오락실을 출입한 경험을 갖고 있다.
- 2) 청소년들이 전자오락실에 출입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별다른 이유없이’, ‘친구들이 권해서’, ‘호기심 때문에’, ‘주변에 있기 때문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청소년들이 전자오락실을 처음 접해 본 시기는 국민학교 시절 56%, 중학교 시절 26%, 고등학교 시절 11%, 재수 시절 3% 등으로 보고되었다.
- 4)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전자오락실 출입으로 인한 피해로는 흡연 33%,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30%, 폭력행위 7%, 약물제공 2% 정도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5) 청소년들은 남녀 중고등학생의 경우 39% 정도가 카페에, 31% 정도가 고급 레스토랑에 15% 정도가 디스코장에 가본 경험을 갖고 있다.
- 6) 청소년들이 디스코장을 가는 이유는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냥 즐기기 위해’ 등으로 나타났다.
- 7) 청소년들이 디스코장에 가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건전한 여흥이므로 바람직하다’ 35%,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32%, ‘별다른 놀이 유형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 20%, ‘향락풍조를 조장하므로 없애져야 한다’ 12% 정도 등의 응답 결과가 보고되었다.
- 8)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조장하는 상황적 요인들로는 ‘건전한 오락장과 놀이 공간의 빈곤’, ‘교복자율화와 두발 형태의 제한 철폐’, ‘한탕주의와 냉소주의의 만연’,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해업소 업주들의 부도덕한 상흔’ 등을 들 수 있다.

2. 결 론

앞 절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원인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중 청소년 비행의 대책과 청소년 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문화적 소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합하여 유기적인 조직체를 통해 청소년들을 지도해 나가야만 학교교육의 내용이 현실화되어 가정과 사회의 가치와 일치되는 문화적 풍토가 조성되고 그 속에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되리라고 본다¹⁾.

가정은 한 사회 체계 내의 가장 영향력있는 사회화 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가정의 구조 및 특징은 청소년의 행동 규범 및 가치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자립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작은 부적응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고 참지 못하며 행동 또한 도피적·반항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학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을 무시당한 채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갈등을 자주 겪게 된다.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문제행동의 예방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생들이 부적응 상태를 일으키지 않고 학교 생활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표면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에 집착하는 것보다 생활 내면에 감추어진 진정한 문제성을 발견해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학교교육은 입시위주나 지식전달의 교육체제에서 탈피하여 인격형성의 전인교육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며, 교사는 진정한 교육자

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여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가 뜨거운 인간애로 맺어진 인간관계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한편 사회의 구성원들은 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 처럼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행동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적응력과 준법정신을 길러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시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지역내 자원의 활용과 유관단체들의 협력 및 조정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비교육적인 사회환경을 정화해 나가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은 처벌위주의 강경책이나 설교위주의 교육보다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행동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감한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한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인격 형성을 위한 전인교육 실시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춘다.

둘째,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무비판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청소년 입장에서 문제해결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셋째,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성인과 청소년간의 관계를 수직적이기 보다는 수평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면서 양자간의 관계가 공동체적, 상호협조적, 신뢰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넷째,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성인에게도 있음을 고려하여 성인들은 가급적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청소년 문제해결이나 지도방안의 접근은 정부의 단속 및 행정력 강화와 같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방법보다는 가정, 학교, 사회단체, 정부간의 유기적인 조직망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국민적 차원으로 추진한다.

여섯째,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종합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 1) 우제술(1985), 청소년 비행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 고 문 헌

- 기백석외(1981). 비행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 과학, 제20권, 제2호.
- 김문항외(1975). 가출청소년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연구, 제9집.
- 김정기외(1983). 비행청소년의 범죄 양상과 음주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의대지, 제8권, 제3호.
- 김준호외(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수(1980). 청소년 가출의 가족 역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 과학, 제12권, 제3호.
- 남정자외(1990). 학교보건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무부(1981). 소년보호 종합분석. 서울:내무부 치안본부.
- 민병근(1978). 한국청소년의 대마초 흡연실태에 관한 종단적연구. 한국의 과학, 제12권, 제3호.
- 민병근외(1975). 한국청소년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청소년의 대마초 흡연 양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서울.
- 민병근외(1979). 한국청소년의 음주 빈도 및 음주 양상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적 연구. 오늘의 청소년, 제3집, 중앙대학교 영신아카데미 연구원, 한국청소년 문제연구소.
- 박두병외(1984). 학생청소년의 음주 양상과 공격성과의 상호관계. 중앙의대지, 제9권, 제4호.
- 백명기외(1981). 비행청소년의 약물사용 빈도 및 약물사용 양상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0권, 제2호.
- 법무부 연수원(1989). 범죄백서.
- 송인구(1982). 고교생의 흡연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전공업 전문대학 논문집, 제31권.
- 심영희외(1989).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연구원.
- 안재정(1984). 비행청소년의 의식. 서울:복지문화사.
- 유안진외(1984). 인간발달.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근철외(1987). 청소년 음주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의학지, 제26권, 제2호.

- 이길홍외(1983). 근로청소년의 산업재해와 음주 양상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산업정신
의학적 연구. 한국의 과학, 제15권, 제1호.
- 이길홍외(1985). 청소년 비행의 약물상관 변인 분석. 한국의 과학, 제17권, 제2호.
- 이길홍(1985). 학생청소년의 불안성향과 음주 유형과의 관계 분석. 한국의 과학, 제
17권, 제1호.
- 이승연(1988). 서울시내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 형태 및 지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자(1973). 청소년 가출의 요인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임태빈(1976).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 조사 및 그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라북도 가정복지국 청소년과(1990). 청소년 성문제와 대책.
- 전유자(1982). 한국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 차종환(1986).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바울서신사.
- 체육부(198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체육부(1990). 청소년백서.
- 표갑수(1980). 아동의 가출원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집.
- YMCA(1988). 청소년 포르노 비디오 접촉에 관한 의식.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 YMCA(1989). 청소년 비디오 시청실태 조사보고서.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 Axenroth, J.B.(1976). Social class and delinquency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0(2).
- Burgess & Holstrom(1974). Rape Trauma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 Burn, T.(1907). Relation of playgrounds to juvenile delinquency. *Charities*, 21.
- Cavan, R.S. & Ferdinand, T.N.(1975). Juvenile delinquency. Philadelphia: Lippin-
cott Company.
- Cohen, T.K.(1966). *Deviance and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Elliott, D.(1962). Delinquency and perceived opportunity. *Sociological Inquiry*,
32.

Jenkins, R.(1971). The runaway reac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28.

Winkur, G.(1968). Alcholism, its facets and phase. London, New Teh Jon Cay Company, Oxford.

笠間達男外(1988). 生徒指導 基本事例集, 東京:學事出版.

樽山四郎(1983). 非行生徒の 回復 相談, 新日本法規.

總理府 靑少年 對策本部(1982). 不良行爲靑年の 實態と 對策に 關する 調査.

<신문>

- 조선일보
- 한국일보
- 국민일보
- 세계일보
- 동아일보
- 중앙일보
- 서울신문
- 한겨레신문
- 국민교육신문
- 동양경제신문
- 청소년선도신문

